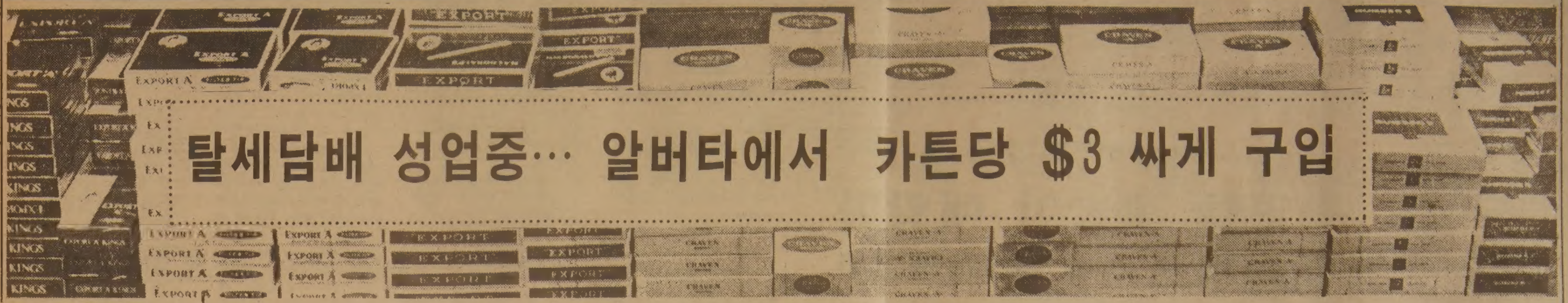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845 1982년 6월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ne 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UN 15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탈세담배 성업중… 알버타에서 카튼당 $3 싸게 구입

불법담배 거래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주(Province) 경계선을 넘나드는 불법담배로 온타리오주는 연간 2,500만 달러의 세금수익을 잃는다.

8일자 토론토·스타지에 의하면 알버타주에서 세금이 싼 담배를 사다가 온타리오주에서 파는 담배밀매조직은 약25개에 달해, 온타리오주 조세청은 이같은 밀매조직에 대항, 최근 6명의 전담 특별수사반을 편성했다.

담배밀매의 주원인은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담배세금이다. 알버타에서는 1카톤(200개피)당 64센트에 불과하나, 온타리오에서는 $3.68, 뉴·펀들랜드에서는 $6.40까지 이른다. 밀매꾼들은 알버타에서 카톤당 $7.50에 구입한 담배를 온타리오에서는 보통 3달러의 이익을 붙여 $10.50에 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5만카톤을 실은 트레일러 하나가 일단 주경계선을 넘으면 15만달러의 이익금(Gross)이 굴러 들어온다. 이같이 이익금이 크기 때문에 조직 범죄단이 개입됐다는 우려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탈세수사반의 베테랑수사관 제이크·밀러씨는 "담배는 금과 같다. 판매시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회전도 빠르다. 이때문에 조직범죄단이 손을 뻗쳤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만큼 탈세되어 일부 범죄자의 배를 불리게하므로 최종 피해자는 온타리오 주민이다"고 말했다.

뉴·펀들랜드에서 브리티쉬·콜럼비아까지 불법담배조직은 전국적으로 널려있다. 토론토시내의 담배도매상들은 온타리오주에서 전체담배거래량의 약5분의1인 연간 8천만달러어치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진 불법담배전담반은 최근 약 2백만달러를 포함한 6명을 체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수사반은 79년과 80년에 걸쳐 10개월간 이 방면에 손댔던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4천카톤만 자백, $3,200의 벌금을 물었다. 그당시 조세청이 추산한 탈세액은 무려 47만5천달러였으나, 법이 미비, 벌금액이 적었다. 정부는 담배세법을 개정, 벌금을 전보다 1배배 많은 32만달러로 올렸다.

캐나다에서 주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불법상품은 담배이외에도 디젤유, 보트, 가구, 골동품등이 있으나, 수사반들은 담배수사에 너무 바빠 다른데는 손도 못댄다.

(2면에 계속)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국장 : 송 광 호

파죽지세의 이스라엘군 「팔」군요새 대부분점령

(베이루트)7일 주요 팔레스타인 요새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틀째 치열한 대규모 공세로 레바논수도 베이루트 남부 24Km지점까지 육박했다.

팔레스타인의 와파통신은 보포트·캐슬, 하스바야, 티레 및 전략요새인 나바티예를 이미 점령한 이스라엘군이 사디예트까지 진격했고, 시돈항의 함락도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공군의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육군과 해군은 레바논수도 베이루트를 목표로 계속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병원소식통들은 이스라엘 전폭기가 새차례 베이루트 남쪽 상공에서 포격을 퍼부어 야세르·아라파트 PLO지도자의 사무실근접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졌고, 적어도 60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미그-23기 1대가 격추했다고 전한 베이루트 방송은 이스라엘의 전략이 「팔」군 포부대의 사정거리를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레바논 남부에 진을 친 「팔」군의 군사력을 가능한 한 위축시키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재개된 총공격이 위장된 「팔」군의 포격위험을 막는데 불가피한 방어였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트루도 캐나다수상은 모나캠·베긴 이스라엘수상에 보낸 특별서한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었다.

"제5계절" 필진이 바뀝니다

지난 2월17일부터 5월13일까지 석달동안 계속된 "제5계절" 제2진의 필진 — 석광옥(불광사 주지)·안병원(한인Y합창단 지휘자)·장연탁(조각가)·이해원(대학생)의 제씨께 독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부터 시작뒤 제3필진은 김현순(음악)·김요환(목사)·이수신(은행가)·이유소(대학원생)의 4씨로, 건필이 기대됩니다.

◆이수신씨
외환은행전무

◆김요한목사
베다니성결교회

◆김현순여사
피아니스트

◆이유소씨
토론토대학박사코스

김현순씨(48)는 경남진주태생으로 이화여대 음대출신이며(56년), 이대음대 강사등을 역임, 66년 토론토로 이민하여 피아노 개인교수로 많은 문하생을 양성하는 한편, 현재 미시사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

김요한목사(47년생)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와(72) 서울 현암교회 전도사(72~73), 인ㆍ도원교회 부목사(74), 육군군목(75~78), 서울 상도교회 부목사(78~79)를 역임한후 79년 토론토 이민, 7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론토 베다니성결교회 목사로 시무중이다.

이수신씨는 70년 서울상대(경제)출신으로 졸업직후 외환은행에 들어갔으며 76년5월 미국 Vanderbilt대학원 수료(경제학석사)와 더불어 이해 6월 외환은행에 복직, 76년9월~79년9월 서강대학·성균관대학 경제과 강사, 79년12월 외은토론토 사무소장 부임, 현재 동은행 전무로 있다.

이유소씨는 52년 서울태생으로 서울 중앙고교 출신, 현재 토론토대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전공은 동양사)

알젠틴에 최후통첩 "혈전말고 항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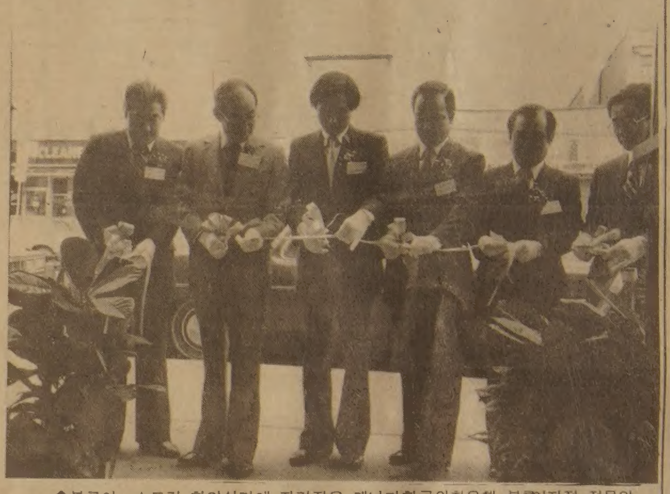
(런던)포클랜드에 상륙한 영국군은 : 7일밤 수도 포트·스탠리에서 알젠틴 수비대와 지척간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제레미·무어 영국군사령관은 "희생자를 줄이려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영국국방성은 5일밤 포클랜드 동부전선에서 4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고 밝히고, 포트·스탠리근교 전선에서 60여명의 「알」군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런던에서는 영국 육·해군의 전략전문가들이 이미 포트·스탠리에 잠입, 임박한 영국군의 최후 공세에 민간인들의 지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국일보
533-2361



◆블루어·스트릿 한인상가에 자리잡은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정문앞에서 개점 테이프를 끊는 인사들. 왼쪽으로부터 박인순한인회장, 이상훈총영사, 김남수지점장, 박종석 주미국 재무관(뉴욕 근무), 홍세표 외환은행 미주주재 이사, 최승낙 캐나다 한국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블루어지점은 지난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나 개점식은 8일낮 11시30분에 가졌다. 직원은 총6명.
주소 : 627 Bloor st. W. 전화 : 533-9593

국립사범대 신설
전학생 기숙사생활

(서울8일=연합)한국정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양성시킬 대규모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8일 문교부는 새로 설치될 사범학교는 사관학교처럼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며 등록금은 전액면제 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교사 양성및 교육기관직원및 교사의 재교육도 담당할 이 학교는 1천억원(미화 $1억3천6백만)을 들여 내년도에 시공된다.

학교부지는 미정이나, 충남 조치원이 유력하며 85년부터 입학생을 받는다.

문교부는 앞서 서울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을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들 두 학교가 강력한 정신교육및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

새 사범학교 입학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좋고, 학교장이나 도·시교육감 추천이 있는자로 한정되며 졸업생은 [illegible]로 최소 5년간 교사로서 봉직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서울8일=연합)한국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망율은 선진공업국보다 훨씬 높다고 한국자동차보험회사 통계가 밝혔다.

작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5,621명중 14세 이하는 22.9%를 차지했다(1,288명). 같은 기간 이탈리아는 6.9%, 프랑스는 7.3%, 서독은 8.5%, 스웨덴은 8.1%, 일본은 13.2%였다.

한국의 6세이하 어린이 사망율은 14.3%로 무척 높았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9593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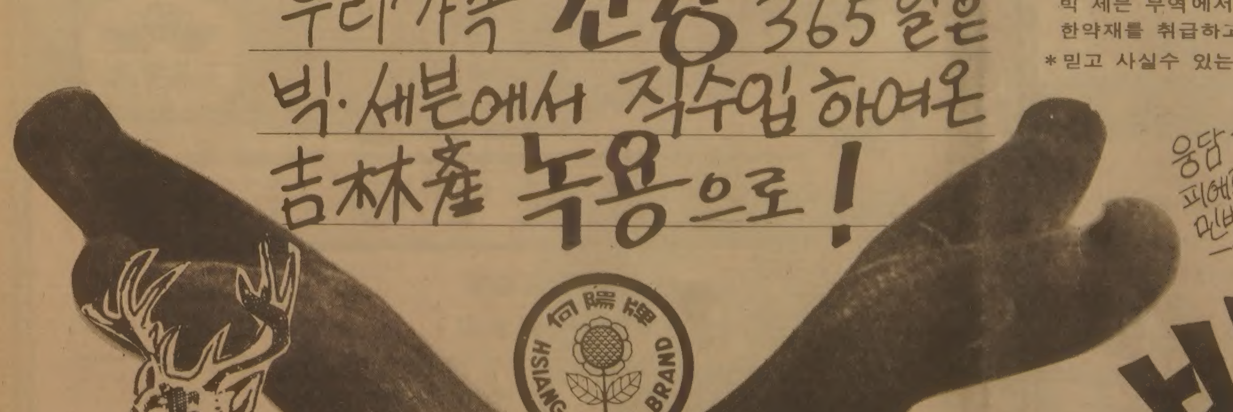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로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우리가족 건강 365일은
빅·세븐에서 직수입 하여온
吉林產 녹용으로!



* 한인 유일의 중국 본토로 부터 한약재 직수입상인 빅 세븐 무역에서 입한 각종 진귀(眞貴)한 한약재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 믿고 사실수 있는 각종 선물취급

웅담 진귀品입하! 피에르가르뎅 * 지반지 Y셔츠 민병철 生活영어 교본

중국산 한약, 인삼 제품 직수입 도매, 소매
귀국 선물 용품
카나다 최고급 밍크제품 전문 취급
비데오, 무비 렌트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고려식품 옆) 533-7966

East AsianLibrary
Rm D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폭소와 재치의 씨알예술제

뮤지칼 『토끼전』 선보여, 2세교육의 보람

씨알예술제 뮤지칼 『토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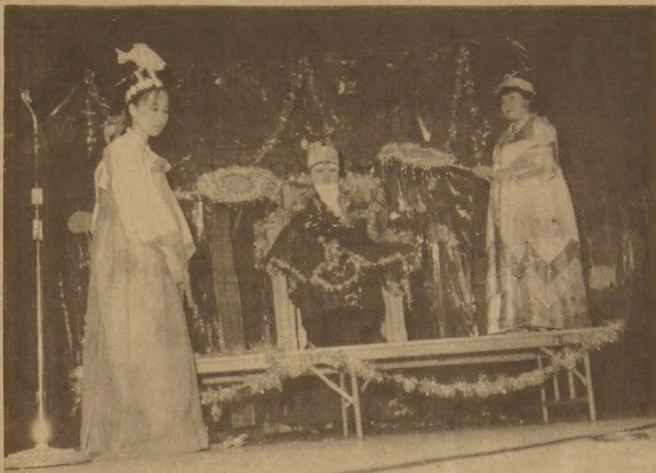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진찰기를 귀에 꽂고 커다란 주사를 놓아봐도 소용이 없다. 토끼의 간이 명약이라지만 용궁에 잡아온 토끼는 간을 바위틈에 숨기고 왔다면서 간을 안 준다.

지난 5일밤 센테니알스쿨에 모인 3백여 교민·학부형들은 어린이들이 엮어내는 해학과 재치에 웃음꽃을 피웠다. 학교의 82년 학기를 총결산하는 이날 예술제는 토요학교에서 닦은 예술및 한글교육의 결정판이었다.

바이올린합주단이 엮어내는 〈로리 아줌마〉는 미래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진지한 모습을 엿보게도 했으나, 김스티븐군은 바이올린은 켜지않고 딴청만 부리다가 선생님이 다시 바이올린을 어깨에 놓아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지하게 연주에 몰입, 웃음꽃을 자아냈다.

태권도시범단이 보이는 송판깨기등에 감탄하던 청중들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토끼전에서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다시한번 보람을 느꼈다.

뮤지칼을 겸한 연극 토끼전은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엮어낸 음악, 무용, 연기의 종합예술이었다. 특히 별주부가 토끼간을 구하러 세상에 나왔을때 만난 노인의 연기솜씨는 일품. 지팡이를 잡고 기우뚱하다 넘어지는 이유진군의 솜씨에 청중들은 다시한번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유진군은 연극배우의 경력을 가진 미술가 이광민씨의 장남이다.



◆궁녀들에 둘러싸인 용왕님(이상윤군 분)

고대 야유회

글렌·해피 팍으로

고려대학교교우회(회장 서준경)는 오는 20일 상오10시 글렌·해피 컨서베이션·팍(Glen Haffy Conservation Park)에서 회원야유회및 낚시대회를 갖는다.

글렌·해피·팍은 Airport Rd.와 HWY 7이 만나는데서 20분가량 북쪽으로 더 올라가 오른쪽에 있다.

준비물은 점심과 낚시도구.

연락처 :
회장 서준경(621-4890)
총무 정필주(661-1819)

性心理學숙제 말썽 大學교수 끝내辭退

(롱비치, 캘리포니아 ·) 「성심리학」강의로 말썽을 빚은 칼스테이트롱비치의 배리·싱어교수가 3일 교수직을 사퇴했다고 학교당국이 밝혔다.

싱어의 사표는 외유중인 학장을 대신해 부학장 글렌돈·드레익이 수리했다.

수강생들에게 동성애, 그룹섹스등을 연구하도록 하는 숙제를 부과했던 싱어교수는 정치인및 종교인들의 공격으로 학교당국의 조사를 받고 몇몇 학생들과 수년간 「로맨틱하게 관련된」사실을 시인했으며 강의를 중단했었다.

토론토·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가는 신문.

동·서양이 똑같다?

부인들, 절반이 매맞아

구타남편들은 여러 층에 골고루

(오타와)캐나다여성중 절반이상이 남편으로부터 1번이상, 4분의1이상이 정기적으로 매맞고 있음이 3일 통계에서 드러났다.

첫번 구타중 80%가 임신중에 일어났다. 아내 구타는 지적수준이나, 경제수준에 관계가 없다.

오타와 칼톤대학의 사회학자 3명이 캐나다전역서 온 66개 학술단체원 8천명이 참석한 캐나다학자회의(The Conference of the Learned Societies)에서 발표한 이 논문은 "변호사·의사·경찰관등 모든 경제·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부인을 때린다"고 지적했다.

회장에 김양자씨 이화여고 동창회

이화여고동창회(회장 송민자)는 지난 5일총회에서 앞으로 1년간 일할 새회장으로 63년 졸업 김양자동창을 선출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비로 야유회 대신 송민자씨댁에서 가진 총회는 또 새총무로 66년 졸업 이재숙동창을 뽑았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에피소드

토막화제

사고투성이, 면허관은 위험직업 20번이상 떨어지는 끈기파도

22년동안 온타리오주정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본산지였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가 내달초 현재의 장소(HWY 401×Keele St.)에서 말톤(Malton) 북쪽으로 옮긴다.

한인교포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 곳에서 시험을 치루고 면허증을 땄다. 대부분 이민초기에 꼭 거쳐야할 시련(?)중의 하나로 누구나 운전시험에 관한 에피소드를 간직하고 있다.

이 곳에서 시험관으로 오랫동안 일한 론·해리스와 루이스·이아코비노에게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론과 해리스는 다른 20명의 동료와 함께 매일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긴장과 불안으로 떨고있는 운전수험자들을 자극시키지 않기위해 겉으로는 태연한 체 하지만 수험자들의 미숙한 운전에 생명을 건 시험관들은 하루 온종일 수험자들보다 더 큰 긴장과 불안으로 떨어야만 한다.

여기 론과 해리스가 전하는 에피소드를 들어보자.

○수험자의 3분의2이상이 첫번시험에 떨어진다. 20번 시도했으나 아직 파란 카드(운전면허증)를 못받은 사람도 있다. 어떤 수험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시험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 시험관은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아멘"을 했으나 결과는 또 낙방.

○모터싸이클리스트(오토바이운전자)들도 이 곳에서 시험을 본다. 절대로 죽지않는다고 장담하면 어느 여자 바이커(Biker: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약칭) 지망생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달리다가 높이가 낮은 콘크리트울타리를 들이받고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은 비틀비틀 일어나 옷을 턴다음 맨먼저 하는말이 왈"다시한번해도 될까요?"

○몇몇 수험자들은 과잉흥분으로 운전시험도중 사망했다. 시험관들은 이 짧고도 지루한 여행(?)이 보도, 잔디밭, 개천, 울타리, 가게앞, 나무, 전주등에서 끝이날때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수난을 당하곤 한다.

○수험자들은 해리스의 벽돌사무실을 들이받기도 하지만 쉽게 낙담하지는 않는다. 비록 빨간불에 건너가고, 과속을 하고, 횡단도로를 손들고 건너가는 행인을 무시하면서도 어느 수험자는 "나는 절대 히치하이커는 태우지 않아요"하고 말한다.

시험이 끝나면 약속이나 한듯이 던지는 요망사항은 "합격됐나요?"

"무용 대공연에 이상없다"

김용순무용연구소 발표회 박두

15작품 · 연 140명, 댄서사이즈도 등장

제3회 발표회를 앞둔 무용가 김용순씨와 문하생들은 매주3회씩, 토요일은 8시간씩 고되게 연습하며, 마지막 손질에 여념이 없다.

"작년에 받은 제1회 한인민족상이 커다란 정신적 힘이 되주었다"고 말하는 김용순씨는 "무용은 인간의 감정을 직접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인 동시에 출연자와 관객이 서로 감정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발표회에 더욱 많은 교포의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저녁7시30분부터 약 2시간 라이어슨대학에서 가질 이번 발표회에는 김씨의 독무 「한 5백년」을 비롯, 총 15작품이 펼쳐진다. 임신중임에도 열심히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독일계 매소진(Auua Mueller)양등 출연자 32명을 합쳐 이번 발표회 총동원 인원은 140명.

공연될 작품은 〈화관무·부채춤〉〈승무·3고무〉〈꼭두각시〉〈처녀총각〉〈산조〉〈탈춤〉등의 한국고전무와 〈Fame〉과 〈You light up my life〉등 현대무용도 곁들인다. 〈한 5백년〉은 조용필의 노래, 〈You light up my life〉는 대비·분의 노래를 깔고 펼쳐지는 무용이다. 재즈의 참맛을 고전무용에 응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일아침 1시간30분씩 재즈발레를 배우고 있는 김씨는 특히 춤과 체조를 겸한 댄서사이즈(Dancer Cise)를 선보인다.

5천년 춤의 역사를 보여주는 춘앵무는 한국에서 2달전 도착한 서울대 국악과 출신 백미애씨가 특별출연하며, 6월말로 토론토를 떠나는 한국TV아나운서 김정숙양과 오재윤씨가 김씨와 함께 춤 〈승무〉에는 북7개가 동원된다. 〈탈춤〉은 여러 탈바가지의 모습을 나열해 보았다. 앞으로 보면 남자요, 뒤로보면 여자인 출연자는 다른 탈을 쓰고 등장한다.

화관무와 부채춤을 한데 모아 한국무용의 화려함을 최대한으로 표현해보자 했다.

종합예술의 무대로는 오킹센터보다 낫다는 라이어슨극장의 무대장치는 장기철씨가 맡았다. 김씨는 지난 2차례 공연장소인 빅토드고등학교강당보다 넓은 무대로 옮아간 것, 후원진이 강화된 점, 출연진이 2배나 증가한 점이 그동안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체육과(무용전공)를 졸업한 김씨는 67년 문공부제정 문화예술대상 수상, 74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공연,76년 캐나다이민, 80년 무용연구소를 개설 문하생을 양성해 왔다.

79년과 80년 두차례 발표회를 가졌으며, 81년 토론토·한국일보사 제정 한인민족상 예술부문상을 수상직후인 7월1일 하버·프론트에서 캐네디안 관객을 위해 공연, City-TV에 방영되었다.

〈조미래부장〉

◆12일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김용순 문하생들. 뒤에 김용순, 장기철씨등의 모습이 보인다.

[1면에서 계속]

불법담배에 마피아 개입?

핀볼머쉰·골동품·의류도단속 「온」주 거래량의 20%

연방정부에서 16년간 개인세 탈세를 전담하다가 최근 이 수사반에 들어온 밀리씨는 "세금이 오르고 경제가 나빠지자 점점 불법담배거래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밀매꾼들은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으나 일단 잡히면 싹 망한다. 벌금액도 엄청날 뿐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붙어 다닌다. 벌금을 못 물면 물론 복역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최근까지 온타리오주에서 성행하던 불법담배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나오는 면세담배 였다.(정부는 인디안 보호를 위해 그들의 생활용품중 일부를 면세한다. 단, 이런 상품이 이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담배는 벌금형의 강화로 거래량의 80%가 없어졌다.

온타리오주 인디안보호구역에서 팔린 담배를 노인, 어린이 포함한 총 인디안 인구수로 나누면 인디안 1인당 하루에 964개피를 태웠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보호구역 밖으로 유출된것이다.

인디안들이 담배공급을 꺼리자 밀매꾼들은 알버타로 눈을 돌렸다. 담배값이 싸고, 주경계 검색이 없고, 벌금형이 약한점등이 알버타담배의 매력이다. 물론 브랜드는 같다.

"온타리오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검색치 못하는 한 불법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한국 교포들에게 잘 알려진 어빙·후리쉬 「콜·앤드·후리쉬」사장은 말했다.

밀매꾼들의 기동력은 막강하다. 알버타에서 온타리오나, 노바스코시아로 운반할때는 트럭, 뉴펀들랜드로 갈때는 비행기까지 동원한다. 이정도 되면 조직범죄단이 낄만하다.

불법담배를 막으려는 것은 주정부와 담배도매상들이다. 담배제조업자나 소매상들은 상관 안한다. 불법이던 합법이던 담배만 잘 팔리면 되니까. 소매상들은 이익이 오히려 많은 불법담배에 솔깃해진다. 그러나, 소매상이 불법담배인줄 알면서도 샀다면 그도 걸린다.

뉴·펀들랜드에서는 거래량의 3분의2가 불법담배이다. 담배값이 노바·스코시아등보다 비싼 카톤당 $13달러나 되기때문이다.

B.C주의 담배도매상 프레드·도드씨는 "주정부에서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 쾌백주에서는 타주와 포장이 달라 불법담배는 금방 표가 난다"고 말한다.

불법담배 해결의 열쇠는 바로 소매상들이 쥐고 있다. 소매상들이 불법담배를 안사들이면 범법행위는 근절.

토론토도매상 태스·캐리씨는 "이 불법담배때문에 합법적도매상들이 망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1번에 50카톤이상을 소매상에 팔려는자는 도매상등록을 해야한다. 밀매꾼들은 등록법을 위반하면서 판매망을 수시로 바꾼다. 똑같은 소매상에게 계속 팔지는 않는다.

수사반에 들어오는 정보는 대부분 경쟁상태에 있는 소매상들에게서 나온다. 정보자체가 믿을 것은 못되나, 30개 정보가 들어오면 그중 하나정도는 쓸만한 가치가 있다.

81년6월 온타리오주 조세청은 불법담배 취급자에게 탈세액의 2배가되는 벌금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한편, 조세청은 담배에 뒤이어 쾌백주에서 흘러들어오는 핀볼·머신,골동품과 의류에도 눈을 돌렸다.

이제까지 불법담배를 취급하던 4~5명 일부 교포들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물었고, 이 담배를 샀던 소매상들이 메트로경찰 및 조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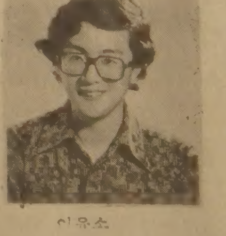
〈유승민 부장〉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션파크

제5계절

단 오(端 午)

이 유 소(토론토대학 대학원생)



이유소

서울에서 남
◉중앙고교(서울) 졸업
◉현재 토론토대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전공 동양사)

올해는 4월에 윤달이 끼어 6월21일이 음력 5월 초하루가 된다. 여름의 명절 단오가 바로 때를 맞춰 드는 셈이다.

음력으로 5월은 중하, 신선한 햇볕 아래 생동하는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명절이 단오이다. 이날 먹는 음식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리취를 넣어 찐 떡, 중국에서는 종려잎에 싸 찐 찰밥, 일본에서는 떡갈나무잎으로 싸서 빚은 모찌등, 어느것에나 새로 자라나는 자연을 섭취함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도우려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날 하는 행사들이 여느 명절보다 체력과 관계가 깊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이면 남자는 씨름을 하고, 여자는 그네를 뛰어 하루를 즐겼다.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배를 저어 빠르기를 겨룬다. 이날 타는 배가 용의 모양을 한데서 Dragon Boat Festival이라는 영어이름마저 생겼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단오가 사내아이들의 명절이다. 잉어 모양을 한 깃발을 아들수대로 지붕에 달아 이날을 축하한다. 그리고 집안에는 갑옷, 투구, 무사차림을 한 인형따위를 장식한다. 아들들이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기 위하여 생명력 넘치는 이 여름명절을 택한 일본사람나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이 단오이다. 여느 명절보다 양기와 생명력에 넘치는 단오이다.

이제는 멀어진 명절, 그러나 그 뜻을 되새기며 길고 지루하던 겨울에서 깨어나 오는 여름을 기대해 본다.

하계특별코스

토론토 피아노 아카데미는 금년 여름에 6주간의 여름특별코스를 열게 되었읍니다.
이 코스 기간은 7월22일(목)부터 9월1일(수)까지 입니다.

이 여름 특별코스 가입을 위한 오디숀은 6월27일 이전에 예약되어야 합니다.

오디숀 어포인트멘트는 전화(416)968~93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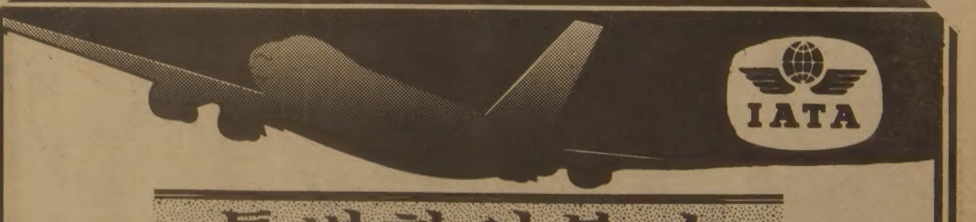
학생리사이틀

토론토 피아노 아카데미는 제2회 학생리사이틀을 오는 7월27일(일요일)저녁8시 헤리코니안클럽(35 HAZELTON AVE.)에서 갖게 됩니다.

피아노아카데미는 동 리사이틀에 많은 교민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입 장 무 료~

the Piano Academy of Toronto　968—9370
109 Dupont Street / Toronto, Ontario M5R 1V4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②

◆필자 : 바바라여사

○문: 저의 남편은 캐네디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직장동료들 집에 우리 부부가 몇번 초청을 받게되자 남편은 『우리도 한번 그들을 초청하자』고 여러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서양음식은 전혀 만들줄도 모르고 한국음식은 냄새가 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망설이고 있읍니다. 부인들까지 함께 초청하는 일이라 신경이 쓰여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토렌스 주부〉

●답: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한국음식은 이곳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음식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때문에 독특한 음식 한두가지만 내놓지 말고 여러가지를 내놓아 선택할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매운것과 마늘이 많이 섞인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인이면서도 맵고 마늘이 섞인 음식을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섣불리 서양음식 흉내는 낼 필요가 없고 한국고유음식의 특성을 살리십시요. 그것이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해 전통과 요리법등을 설명해 가면서 권하시면 일종의 모험을 즐기는 기분으로 기꺼이 먹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음식이 서양음식과는 달리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가를 이해시키면 손님들은 경탄할 것입니다.

한국음식 마음놓고 대접하도록

파티 밤11시까지만 시끄럽지 않게

○문: 18세된 저의 아들아이가 학교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댄스파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웃집이 신경쓰여져 전축소리를 낮게 한다면 허락해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아이는 『전축소리를 낮추면 너무 재미가 없다』면서 자신들의 기분을 좀 이해해달라고 야단입니다. 아이들도 기쁘게 해주고 이웃에도 방해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행코크팍 이명환〉

●답: 파티가 무슨 요일에 열리는지 언급이 없군요. 주말이냐, 주중이냐에 따라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중에 한다면 밤11시를 넘기지 마십시요. 그러나 주말(금,토,일)에 한다면 밤12시(경우에 따라서는 새벽1시까지도 무관)까지는 괜찮습니다.

먼저 스테레오 소리를 최대한으로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창문도 모두 닫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파티전날좀 아드님이 원하는 volume을 고정시켜 놓은다음 귀하가 밖에나가 어느정도 요란하게 들리나 체크해보십시요.

좀더 만전을 기하려면 이웃에 댄스파티 한다는것을 미리 연락해주시면서 『언제라도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십시요. 대부분의 이웃사람들은 『우리도 젊은이들을 이해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것은 젊은이들의 파티에서 말썽되는 것은 전축소리가 아니라 「마리화나」라는 점입니다. 아드님에게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엄하게 경고해 놓으십시요.

북미생활의 에티켓이나 일상생활의 작은 궁금증등을 풀어주는 『바바라에 물으세요』를 본보 미주본사의 협조로 주1회씩 연재한다.

상담은 LA·한국일보의 영문판 담당기자인 바바라·엥거(Mrs. Barbara Enger)씨가 맡는다.

영어학석사인 엥거여사는 한국에 4년간 머물면서 외대, 성균관대, 동아대등에서 영어강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습성, 모르는 점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점, 갑갑했던 점, 혼동됐던 점등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큰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질문을 바란다.〈편집자주〉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

어떤 情事 ②

"회는 나중에 먹고 사우나나 갈까…"

그들이 결혼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던해 가을 그녀는 다섯살 위인 한기수와 몇번 데이트하고 나서 저쪽이면 괜찮다 싶어 바로 결혼해버렸다.

그녀는 그런저런 먹고사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복덕방업으로 그녀를 대학까지 보내주었다.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결혼조건에 도움이 될리 만무했다. 남자쪽이 워낙 쟁쟁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끼리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었다. 남자쪽 아버지는 은행장이었다. 이렇게 집안이 다른 두 사람이 맺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를 그들이 잘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중간에 두 장이가 있어 맞선을 보는 형식을 취했다면 그들은 맺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도서관 학과를 나온 그녀는 졸업하던해 봄 R그룹에 입사하여 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청년들을 알게되었다. 한기수도 그중의 하나였는데,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서실에 나타나 묵묵히 책을 보다 돌아가곤 했다. 그는 다른 청년들처럼 그녀를 눈여겨보거나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유망한 청년이라는 사실이, 그리고그의 조용하고 짜묵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느닷없이 데이트 신청을 해왔다. 그의 갑작스런 기습에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혼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 매일처럼 도서실에 드나들었는데, 그렇다고 남들처럼 말을 걸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여자에게 단단히 반한 그는 상대방의 집안 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의 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의 고집에는 부모들도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때문에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 아들이 커서 어느새 여덟 살이 되었고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김명자는 공항에까지 나와있었다. 그녀 역시 뒤쪽에 크리넥스통을 얹어놓은 고급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다.

「애는 어쩌고 왔니?」

달리고 있는 차 속에서 명자가 물었다.

「엄마보고 와계시라 그랬어.」

「잘 됐구나.」

「가정부한테만 맡길 수 있어야지.」

집에는 열아홉 살 먹은 가정부가 한명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친정 어머니에게 집좀 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부산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간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돌아올테니 걱정하지말라. 아빠한테서 전화 오면 부산갔다는 말 하지 말라」 그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단단히 부탁하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시내로 들어간 그들은 우선 냉면집에가 냉면부터 먹었다. 명자는 냉면을 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다.

「별로 맛도 없다, 애.」

「응, 오늘은 어쩐지 맛이 없는데.」

「그만먹고 있다가 회나 먹자.」

그들은 담배를한대씩 꼬나물었다.

「사우나 갈래, 해운대 갈래?」

명자가 턱을 치켜들고 물었다.

朴 男 그림

◀독자의 광장▶ 큰손 유감

김 원 동

극단의 허영과 사치욕을 충족하려던 한 여인의 사기행각은 개발도상의 한국경제에 분뇨물을 뒤집어 씌운채 "영자의 전성시대"가 낳은 후유증은 점점 심한 태풍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집권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바뀌고, 상당수의 각료들이 교체되면서도 사태는 수습의 기미가 없이 국회의사당은 연일 큰손 시비로 신랄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을 이 정도 선에서 종결지으려는 주무장관과 큰손의 배후를 파헤치려는 야당의원들 사이에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큰손과 관련된 특정정당의 정치자금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1공화국의 중석불사건이 그렇고, 제3공화국의 4대의혹사건이 그러했듯이, 지진처럼 요란한 큼직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들먹거려지는 것이 상식화된 한국적 정치자금 시장.

그 어둡고 깊은 지대에 용케 스며든 버러지같은 인간들이 바로 큰손과 귀하신 몸들의 그 일당들이다.

얽히고 설킨 몇명의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한 부류들끼리로 형성된 소위 상류사회가 만들어낸 일이고 보니 더욱 가공할 일이다. 더구나 공존의 논리도, 상호존중의 철학도 없는 철면피한 무리들의 무책임한 집주속에서도 특권층을 업었다는 꼼짝못할 용어하나 때문에 그 높은 문턱의 은행장님들까지 넌픽션의 히로가 되고만 한국적 차원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순경의 만행이 엊그제 같다. 오늘을 살고 있는 비현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그때는 귀를 막고 눈을 가렸지. 큰손을 당하고 무엇을 가려야 한담.

올림픽 유치라는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필자는 킹스·캔디대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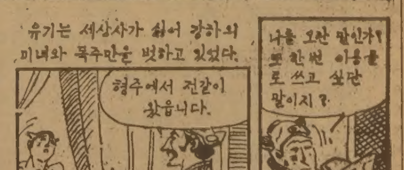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봉사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392

글·高羽榮·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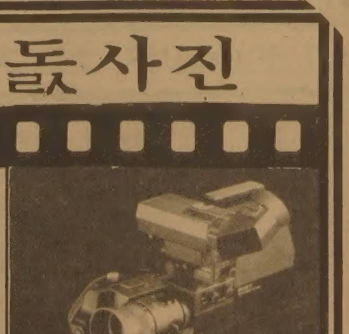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1982 JONG PARK INTER
태권도 참피온쉽
PARK JONG SOO CANADIAN TAE KWON DO ASSOCIATION TAE KWON-DO
일 시 : 1982년 6 월12일(토)
12시(예선)～오후 7 시(결승)
장 소 : DON MILLS ARENA
(1030 DON MILLS RD.)
티 켓 : $3.00
판매처 : 다 운 타 운 (☎ : 961－7100)
다운스비우 (☎ : 781－5527)
스 카 보 로 (☎ : 265－0100)
렉 스 데 일 (☎ : 743－2562)
미 시 사 가 (☎ : 279－6492)
부 람 톤 (☎ : 453－7591)
오 샤 와 (☎ : 576－1571)
문의처 : Main Institute(719 Yonge St.)
☎ : 961－7100

주최 : 박종수태권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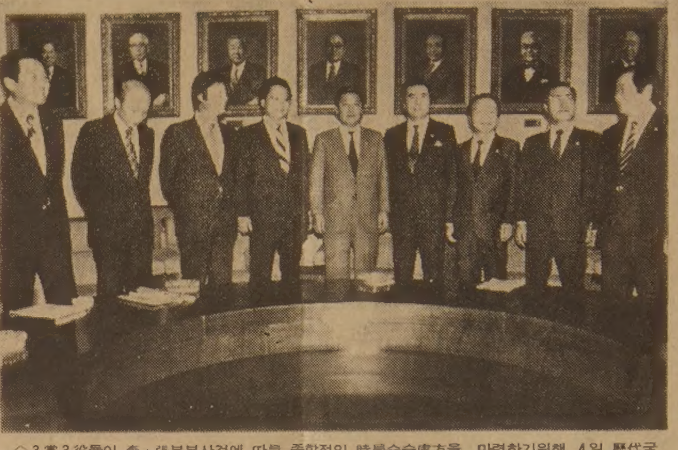
회갑 · 결혼 · 돐사진



현대문명의 이기, 비데오로 모든행사
하나하나를 기록할 수 있읍니다.
사진의전당
새한칼라현상소 VIDEO부
630 BLOOR ST. W. 535－7772

青瓦臺서 政黨대표회담

3黨 3役회의、추진키로 합의



◇3黨3役들이 李·張부부사건에 따른 종합적인 時局수습處方을 마련하기위해 4일 歷代국회의장의초상화가 걸려있는 圓卓接見室에서 회담에앞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있다。 사진㊧로부터 李鍾贊총무·陳懿鍾정책위의장(이상民正)申喆均사무총장·李東鎭총무(이상국민)權翊鉉民正사무총장·柳漢烈총장·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林鍾基총무(이상民韓)趙一濟국민당정책위의장。

與"時局수습 共同의견마련" 野"4部장관에 文敎도引責"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4일하오 국회의장실에서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 3役회의를갖고 李哲熙·張玲子사건에따른 梗塞된 政局완화및 民心안정과 관련、이사건의 보다정확한 진상규명、관계국무위원의 引責문제、경제活性化대책등 時局수습방안을 광범하게 논의했다。

국민、領袖會談에 參席주장

이날회담에서 野黨측은 時局수습을 위해서는 與野領袖회담을 열것을제의 한데대해 民正黨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3役들은 대체로 與野領袖회담을 주선、건의하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政界 소식통은 全斗煥 대통령과 柳致松民韓黨총재간의 단독회담은 아니더라도 가까운시일안에 國政전반에관한 의견교환을 위해 정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형식의 정당대표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靑瓦臺회담에는 民正의 李載澄대표위원 民韓의 柳致松총재와 국민당의金鍾哲총재등이 참석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이초청한청와대정당대표회담은 작년 全대통령의 미국 東南亞방문후등 3차례 있었다。

이날 3黨3役회의에서는 與野領袖회담에앞서 필요하다면 사태수습을 마무리짓기 위해 3黨대표회담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에서 野黨측은 주로 지난번 黨대표기자회견에서 제시된 時局收拾 방안을 조속히 실천할것을 요구했으며 民正黨측은 野黨측의주장을듣고 상호가능한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民韓黨은 이자리에서 총리 부총리 法務 財務등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解任案이 否決된 4部장관은 물론 文教장관도 학원사태에 책임을져야 한다고 관계각료의 경질을요구했다。

民韓黨은 또 民韓·民正黨간의 단독領袖회담을 요구했고 국민당은 民韓뿐 아니라 국민당도 領袖회담에 같이참석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民韓黨은 『인책문제가 관철되지않으면 領袖회담에서 다시 이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도 李萬燮총재권한대행이 기자회견에서밝힌 수습책을 제시하고 사건의정치적책임으로 총리、부총리、재무、법무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국민당은 특히▲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대통령주변인사에 대한정리▲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시행등 다섯가지의수습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野黨측제의에 대해 民正黨측은 國政의 책임을 진 執權여당으로서 時局수습에 적극적인 태세를갖추고있다면서 3役회의에서 제기된 갖가지 문제와 의견들을 정부에 적극건의할 뜻을 비친것으로알려졌다。

이날 회담에는 民正黨측에서 權翊鉉사무총장、陳懿鍾정책위의장、李鍾贊총무、民韓黨의 柳漢烈사무총장、林鍾基총무、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국민당에서 趙一濟정책위의장、申喆均사무총장、李東鎭총무가 참석했다。

時局수습 建議키로

民正議員간담회 李文敎등 引責주장도

民正黨은 4일 상하오에 全국회常任委별로 소속의원 懇談會를갖고 時局수습과 黨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民正黨은 5일상오 총무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高位層에 건의할방침이다。

일부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국회가 총리이하 관계국무위원들의 解任案을 否決시켰지만 時局수습을위해 다른면모의 改閣을 단행, 民心수습의 一大轉機로삼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특히 野黨이解任案을 제출한 鄭致根법무장관등은 물론 학원문제의해결을위해 李奎浩문교장관까지 引責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편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 民心수습을위해서는 국민모두가 主人의식을 갖도록하는 국민大和合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 黨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소속의원들이 黨정책결정에 직접참여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할것▲현재 전문위원이 맡고있는 정부와 民正黨간의 정책협의과정을 상임위 소속의원에게 맡겨 국민의여론을 집약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수있게할것▲黨職者회의대신 중앙집행위원회를 자주열어 黨의정책결정과 운영방침을 논의할것등을 촉구했다。

技術자금金利 8%로 引下

導入절차 簡素化·稅감면

技術振興확대회의

全대통령 "低賃金으로 競爭하는시대지났다"

정부는 기업의 技術革新을 촉진키 위해 기술개발자금의 금리를 延拂輸出金融 수준인 8~9% 수준으로 낮추는등 租稅、政府購買제도、기술도입절차와 이를위한 사용조건등을 대폭 완화키로했다。

全斗煥 대통령 주재로 4일상오10시 中央廳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技術振興擴大회의에서 李正五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대책」에 관한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기술개발애로요인을 타개하기위해 관계부처와 실행에 옮길 12개조항을 협의,연내에 행정조치와 제도화를끝내겠다」고 설명했다。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장관、국회의 常委長、경제단체와 금융기관대표、주요연구기관및 학계·산업계대표등이 참석한자리에서 李장관이 밝힌 12개항의 조치는 다음과같다。

▲技術開發을 선도하는 戰略物品에 대해 최초4년간은 特別消費稅 기본세율의 10%를 적용하고 5년이후부터 매년 30%씩 높여간다。

▲硏究所의 연구분석용 見品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서 초년도에 1백분의90까지 일시 償却토록 한다。

▲민간연구소에 대해서도 정부出捐연구소와 같은 차원에서 연구용품의 관세혜택을 준다。

▲연구용기자재를 수입할땐 先通關、後手續을 할수있도록 조치한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중앙청에서 제2회 技術振興확대회의를 主宰、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제도나 금융、稅制面에서 기술혁신을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인 만큼 기업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우리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도 우선해 구매하겠지만 기업도 다소 품질이 떨어져도 국산품사용에 인색치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社 告

感激의 大賞 2人

朴昌禮씨 - 高昌先씨

(초등부·72세·仁川 東明국민교 교장) (중등부·60세·濟州 五賢중학교 교사)

제1회 教育者大賞수상자 결정

本社제정 외로이 教壇지키는 眞正한 스승像

◇大賞 朴昌禮교장 (仁川 東明국민학교)

◇大賞 高昌先교사 (濟州 五賢중학교)

스승의賞

▲중등부

- 成百信 (55세·서울 中東중교사)
- 裵重源 (57세·釜山부산진여중교사)
- 張基五 (64세·大邱경운중교장)
- 崔熙文 (56세·仁川남중교장)
- 朴旺熙 (58세·華城비봉중교사)
- 金柄喆 (60세·麟蹄원통고교교감)
- 金榮奭 (49세·公州고교교사)
- 李容美 (41세·淸州일신여고교사)
- 安南燮 (44세·光州화운여중교사)
- 金源喆 (51세·南原농업고교교장)
- 姜英奎 (57세·晋州대아중교장)
- 金君洙 (50세·漆谷약목중교감)

▲초등부

- 丁鏞聲 (49세·서울尉禮국교교감)
- 尹仕遠 (50·釜山佐川국교교사)
- 河淸鎬 (39세·大邱황금국교교사)
- 金基鳳 (47세·楊州덕도국교교사)
- 洪鍾允 (60세·春川계성학교교장)
- 李圭釆 (50세·論山동성국교교감)
- 徐鍾圓 (46세·淸州서원국교교사)
- 趙柱善 (55세·麗川郡교육청교육장)
- 韓圭準 (46세·長水덕산국교교감)
- 李昌圭 (42세·忠武유영국교교감)
- 柳長春 (39세·鬱陵천부국교석포분교장)
- 朴性勳 (45세·濟州맹아학교교장)

施賞式 10일上午10시30분 世宗文化會館

19세 가녀린 처녀때 불우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53년、백발의 할머니가 되도록 단 하루도 교육일선을떠난 일이 없는 朴昌禮선생님(72·仁川東明국민학교교장)과 제주도에서 37년동안 가르치면서 1만명의 제자를 길러낸 「평생평교사」로서、다시 박봉을털어 고등공민학교를 일으켜 매일밤늦도록 불우청소년들을위해 봉사해온 高昌先선생님(60·濟州五賢中교사)이 한국일보社제정 제1회 「한국教育者大賞」의 영예의 「대상」수상자로 결정됐읍니다。 우리사회에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고 앞서가는 새 교육자像을 확립하기위해 제정된 「한국教育者大賞」은 또한 영예의 「스승의賞」수상자로 柳長春선생님(39·경북울릉군 천부국민학교석포분교장)과 成百信선생님(55·서울中東中교사)등 모두24분의 선생님을선정、「대상」수상자와함께 민족의 스승으로 역사에 그이름을 기록하게되었읍니다。

「한국教育者大賞」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10일상오10시30분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지며、시상식에 이어 세종홀에서는 한국일보社가 주최하는 오찬회가 열립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수상자 두분에게 각5백만원씩의 상금과 세계일주여행의 부상이、「스승의 賞」수상자 24분에게는 각1백만원씩의 상금과 국내여행의 부상이 각각증정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외로운 教壇을 지켜가는 전국의 교육자 모두에게 온국민의 감사와 따뜻한 존경의 뜻을모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일보社가 마련한 「한국教育者大賞」은 지난1월1일 한국일보新年號에 社告로 그制定이 발표된후 교육계의 높은 관심과 많은격려를 받아왔으며、지난3월31일 마감한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초등·중등부에걸쳐

전국 1백17명 추천후보 教育界元老등 審査선발

전국에서 1백17건이 접수돼、그동안 교육계원로와 교육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심사로 진행해왔읍니다。

심사위원들은『수상자가 제한돼 접수된 모든 분들을 뽑지 못한것이 안타깝다』며 자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教育立國의국민적 여망과 의지를 집약한 「한국教育者大賞」에 독자 여러분의 깊은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大賞」및 「스승의 賞」수상자

主催 한국일보社

後援 文教部·大韓教育聯合會·大韓教員共濟會

社會漫評

요즘 사막을 가는 기분으로…

地平線

참 꼬리가 길다。 숫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이 百으로 셈하게 많다。 어쩌다 본 어느 대학안 풍경이다。 뭘까? 시내버스통학권을 사자고 꼬리잡이 한다는 볼멘설명이다。 요금은 요금대로、오르고、그야말로 2重苦가 아닐수없다。▼1일부터 시내버스 학생요금은 60원에서 85원으로 올랐다。 1백10원의 일반요금을 내던 근로청소년에게 학생과 같은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이 그 「名分」이다。 그러나 회수권은 근무회사를통해 사야하고、회사는 근로자명부를 버스조합에 제출하는등 사무처리에 인건비를 들여야 한다。 그래서 2일까지도 회수권 구입을 신청한 업체는、서울의 경우 대상업체의 1.7%뿐이다。

▼근로청소년으로 버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회수권을 사고、하루 두번 버스를 탄다면、하루 50원씩 도합 5백50만원 꼴의 혜택이 된다。 반면 학생회수권의 사용대상자는 1백30만명쯤이다。 이들중 반만이 회수권을 쓴다고 해도、이들의추가부담은 하루 3천만원을 넘는다。 이판국에 회수권혜택을 받는 근로청소년이 전체대상의 겨우 몇 %뿐이라면…?▼결과는뻔하다。 학부형들은서울에서만 몇천만원을 추가부담한다。 그 돈의 거의 모두가 버스업자 차지로 된다。 행정의 「名分」으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업자에게는 「떡고물」이 돌아간다。 이처럼 우리 행정은 「名分」에 밝다。 「名分」만 찾아지면 무슨일이든 할수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경우 그 「名分」은 퇴색하기 일쑤요、그뒤의 실속은 언제나 고약하다。

▼근래 서울시는 都心세차장의 外郭이전계획을 백지화했다。 세차장이 기름을 흘려 공해요인이 되므로、이들에 대한 이전명령은、한때 서슬이 퍼렀었다。 그러나 대부분업체가 都心잔류를 희망하자、서울시는 하나의 「名分」을 찾아냈다。 ―세차장은 都心에 남되、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공해요인을 없앤다。 이를받아 업자들은 진정서를냈다。 비싼세차기를 설치할수가 없으니、말미를 달라는 얘기다。▼定石대로하면、이제 자동세차기의 「名分」은 사라지고、「白紙化」만 남게될지도 모른다。 환경행정의 한 뼈대가 빠지는 꼴이다。 이렇게 「名分」좋아하는 행정은、겉다르고 속다른 「名分」으로 신뢰를 잃는다。 이럴때 「名分」은、「名分」아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HOLE 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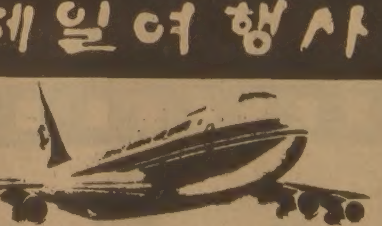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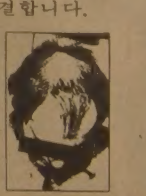
유지원
신용묵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알 림

한글교육과 한국인의얼

이상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제3회 한맘교육 강좌를 개최하오니 한국문화 보존에 관심이 있는 교민 여러분과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시는 교사및 학부형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강 연 :

1.한국인의 얼: 유재신 박사 (토론토대학교 동양학교수)
2.한국문학과 한국어교육: 박동규 박사 (한국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교수, 현재 토론토대학교 교환교수)
3.가정에서 한글읽기와 글짓기: 이석현 선생 (한국아동문학가, 한국일보토론토편집인)
4.복합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조성준 선생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교육사회사업가)

토의 : 사회 구상회박사
일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10시~오후1시30분
장소 : 한맘문화회관 439 DUNDAS ST. E. TOR (PARLIAMENT ST. AND DUNDAS ST. E.)
참고 : 다과와 특별프로가 마련되어 있음.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조성준 (☎ 293-7801)
한맘한글학교 교장 허영식(☎ 444-4987)
후원 : 한인장학재단

蘇, 아르헨에 레이다 설치

LA紙보도 軍事지원 최초로 확인

2~3週전부터 作業

英本土공격 對備인듯

【로스앤젤레스4日UPI聯合=特約】 소련기술자들은 최근 아르헨티나 해안을 따라 정밀한 레이다시스팀을 설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紙가 4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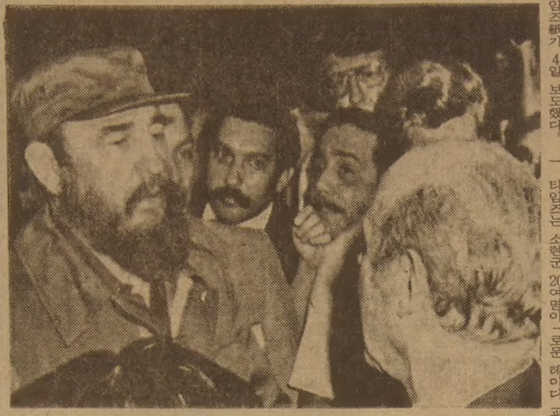
LA타임즈의 이같은 보도는 포클랜드전쟁발발이후 소련이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고 있음을 전하는 최초의 시사이다. 타임즈는 소련군 20여명이 2~3주 전부터 아르헨티나에 도착, 집적 레이다 추적시스팀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새로운 레이다 교란장치를 갖춘 비행기나 선박이 접근해 올경우 이를 추적할수있는 장비를 갖추지못한것으로 알려져왔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對아르헨티나 군사지원 금지조치로인해 아르헨티나가 소련에 군사장비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임즈 보도에의하면 소련 기술자들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 석유생산지이며 공군기지인 코모도로리바다비아에 있으며 몇몇은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남쪽지방에까지도 진출해있다고 말했다.

타임즈는 또 이같은 레이다망 건설작업이 아르헨티나의 외국소식통들로부터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이 레이다망이 앞으로 있을지도모를 영국군의 본토공격을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스트로, 電擊 아르헨外相방문 피델·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이 3일 아바나에서 열리고있는 非同盟외상회의장을 예고없이 방문,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아르헨티나외상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아바나3일AP電送=聯合】

印駐在 쿠웨이트 1等서기관 被殺

【뉴델리4日路透聯合=特約】 뉴델리주재 쿠웨이트대사관의 무스타파·알·마르주크 1등서기관이 4일상오 자택앞에서 피살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駐英 이大使被擊

【런던3日AP聯合=特約】 슐로모·아르고브 주영 이스라엘대사(52)가 3일밤 런던의 도체스터호텔밖에서 정체를 알수없는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총상을 입었다고 런던경찰청이 발표했다.

경찰청대변인은 피격된 아르고프대사가 웨스터민스터병원으로 급히 운반됐으며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

英軍、和戰 양면作戰

降伏권유·陸海空 3면에 砲擊

포클랜드

【런던3日路·AP=聯合】 영국군은 3일 포클랜드의 수도 포트스탠리에 육·해·공3면으로부터 포격을 가하는한편 7천명의 아르헨티나수비대들에게 항복을권유하는 수만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영국종군기자들은 영국군이 이날 포트스탠리로부터불과 9·6㎞떨어진 지점까지 포위망을 압축, 포격을 가하고있으며 징발된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 2號로 수송된 네팔의 구르카족병사등 3천여명의 병력이 포클랜드에 상륙, 포트스탠리 포위공격 작전에 투입되었다고말했다.

영국국방성은 이날 전황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으나 영국군 해리어전투기들이 아르헨티나군의 투항을 요구하는 수만장의 전단을 포트스탠리상공에 살포했다고 말했다.

이날살포된 전단중에는 존·우드워드영국기동함대사령관이 아르헨티나의 마리오·메넨데스 포클랜드총독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우드워드사령관은이 서한에서 『아르헨티나군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계속해야할 필요가있는지 검토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유엔本部3日AP=聯合】 유엔安保理는 3일 파나마와 스페인이 공동제출한 포클랜드 휴전결의안에 관한 토의를 24시간 연기했다.

이와같은 연기결정은 레이건美대통령으로하여금 베르사유서방 경제정상회담에서 마거리트·대처英수상과 포클랜드사태를 협의할수있는 시간을 주기위한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파나마와 스페인은 이날상오 회의에 포클랜드 휴전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은 영국이 요구했던 아르헨티나의 철군개시와 휴전을 무조건부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아프간 大激戰

판지세르서 1천여명死亡

【이슬라마바드3日路·AP=聯合】 소련군의 지원을 받고있는 아프가니스탄정부군과 이에 대항하는 아프가니스탄 회교저항군은 지난 3주동안 수도 카불 북부 그들의 요새인 판지세르계곡 일대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최대규모의 전투를 벌였다고 이슬라마바드의 군사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회교저항군 쌍방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2일밤 카불방송은 이번전투로 판지세르계곡 일대와 반군들이 소탕됐다고 보도했으나 반군측은 이번전투에서 1천여명의 정부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약 4만명의 소련·아프가니스탄연합군이 전차 전투기및 헬리콥터를 동원, 판지세르계곡에 대한 공격을 가해왔다고 전했는데 게릴라 훈련장인 이 계곡은 반군의 가장 훌륭한 요새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美·佛정상會談 엘리제宮서

中美·中東 情勢등 협의

【파리 3日AP·UPI=聯合】 레이건 미 대통령과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3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베르사유 서방경제정상회담에 앞선 美·佛정상회담을 갖고 포클랜드사태를 비롯 중미·중동문제등 국제정세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2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후 자신과 미테랑 대통령이 포클랜드사태와 중미·중동문제를 토의하고 인플레·고금리·실업등 제반경제문제에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가볍게 토의한데불과하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마거리트·대처수상과 개별회담을갖고 포클랜드사태에 관한 양국의 견해를 깊이있게 토의할 예정이며 스즈끼·젠꼬(鈴木善幸) 일본수상과도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포클랜드事態 戰後가 더 문제다

국제초점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전쟁은 시간문제일뿐 영국의 승리가 굳혀지고있다. 그러나 전쟁이 영국의승리로 끝난다해도 분쟁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

전쟁은 당사국인 영국과 아르헨티나뿐아니라 서방세계에 돌이킬수없는 상처를 남긴채 지난4월2일이전의영국지배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것뿐이다.

美국무성관리들은 포클랜드전후의 사태를 ▲아르헨티나의 政情혼란과복수를 위한 군비강화 ▲영국의 포클랜드수비를 위한 막대한 출혈 ▲영국의 육해공군력의 포클랜드주둔으로 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력약화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쇠퇴 ▲아르헨티나의 소련및 쿠바와의 밀착등을 예견했다.

서방세계의 한군사전문가는 『포클랜드사태는 절정을 이루고있는 洪水와 같다. 물이 빠져봐야 정확한 피해를 알수있다』고 포클랜드전쟁이 미친 후유증의 심각성을 비유했다.

때문에 승전을 눈앞에둔 영국은 심각한 딜레머에 빠져있다. 제일큰문제는 본토에서 1만2천8백㎞떨어진 포클랜드를 어떻게 수비하느냐에 있다.

영국이 앞으로 포클랜드를 수비하자면 3천명이상의 병력과 수척의함대및 공군기의 주둔이 필요하다. 이는 영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줄뿐만 아니라 나토군의 전력약화를가져온다.

영국은 포클랜드작전에 이미 18억달러를 소모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영국군의 포클랜드 주둔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국민의반발이 일어날것은 틀림없다.

이때문에 대처영국수상과프랜시스·핌외상간에도 불화가 일고있다.

대처수상은 아르헨티나의무조건 항복을 주장하고 포클랜드를 영국통치시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라고있다. 대처수상은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이 성공할수없다는 확신아래 포클랜드군도를 경제·군사적으로 강화·보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핌외상은 포클랜드를 탈환한 후에 아르헨티나정부와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오언전외상을 비롯한 야당지도자들도 같은 견해이며 데일리·텔리그라프紙는 『이번사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영국기가 포클랜드상공에 휘날린다해도 이는 공허한 승리뿐이며 새로운 소모전의 시작을알리는것뿐』이라고 논평했다.

오언전외상은 『영국의 승리가 확실해진이상 상대방의 체면을 구해줄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英、아르헨 체면유지에 苦心

아르헨서"빚안갚는다"宣言하면 金融위기우려

美不信、西方에 큰 傷處안겨

영국은 포클랜드 장기수비라는 궁지에서 탈피하기위해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한뒤 주둔한 다국적평화유지군과 같은 포클랜드평화유지군 창설을 고려하고있다.

대처수상은 3일 영국군이 미국의 요청으로 시나이반도평화유지군에 참여했다고 지적, 포클랜드주둔 평화유지군창설에 미국의 참여를 요청할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처의 구상은 포클랜드의 영국주권 수호를 전제로하고있어 실현성이 희박하다. 시나이반도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이 일단 이집트에영토를 반환한 후에 양국의 동의로 이루어 졌으나 포클랜드의 경우 주권을 포기하지않는 아르헨티나가 이에동의할 가능성이 없는것이다.

다만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도운 미국이 이집트를 협상으로 끌어들여 78년 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을 체결한것처럼 전후 미국의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유지군 주둔도 가능한것이다. 미국은 이미 아르헨티나의 패배에 대비, 캠프·데이비드 협정방식의 평화가능성을 타진하고있다.

전후 한가지 확실한것은 영국이 2차대전후 최대의 전투에서 많은인명과 물자를 상실하고 탈환한 포클랜드군도의 주권을 쉽게 양보하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패색이 짙은 아르헨티나는 양보다는 『명예로운 패배』를 원하고 있어 전투가 끝난다해도 분쟁은 새로운 소모전으로 계속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에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누구의 원조도 받겠다』며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것이며 포클랜드에 새로운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동시에 전쟁수행중이라 잠잠했던 政情불안이 재발할 전망이며 갈티에리정권의 퇴진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남미전문가들도 만일 갈티에리정권이 퇴진할경우 국수주의·페론주의자에게 유리할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포클랜드 굴욕에대한 복수」가 정권存立의 최대 명분이 되리라는데 있다.

그런가하면 포클랜드분쟁이후 고립된 아르헨티나가 소련및 쿠바와 밀착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짙어지고있다.

소련은 포클랜드분쟁이후 수차례 아르헨티나에 군사원조 제공을 제의한것으로 알려지고있으나 철저한 반공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궁지에 몰리고있는 아르헨티나가 소련에 기울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비동맹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던 아르헨티나가 2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에 코스타·멘데스외상을 단장으로한 대표단을 갑자기 파견했다. 또 지난31일에는 갈티에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주재 소련대사 세르게이·스트리가노프대사와오랫동안 단독면담을해 주목을 끌고있다.

이 회의에서 쿠바는 아르헨티나에전면지원을 다짐하는 한편 영국을 지원한 미국을 격렬히 비난했다.

◇病床에 나란히누운 敵과戰友 영국 수병(左)과 아르헨티나병사(右)가 영국군 병력수송선 캔베라호함상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戰傷치료를 받고있다. 수병은 아르헨공군기에 침몰된 프리기트함 아덴트호에서 살아남았고 가르시아 一等兵은 東포클랜드작전에서 포로가됐다. 【런던LPS=駐韓영국대사관제공】

멘데스외상은 이회의에서 비동맹운동이 포클랜드점령과 관련, 영국의군사적·식민주의적 침략행위를 비난해주도록 촉구했다.

포클랜드사태는 아르헨티나의 소련밀착과 함께 南北간에 심한 균열을가져오는 조짐을 보인것이다.

이와함께 아르헨티나는 패전에대한 보복으로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렇게되면 서방세계는 한차례 금융위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천연자원이 풍부해 남미국가중 외국차관을 비교적 적게 쓰는 편이다.

아르헨티나가 매년 갚아야할 이자는 50억달러이며 또 같은 액수의 원리금도 올해 지불해야한다.

아르헨티나는 전쟁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대외부채에대한 채무불이행선언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것이다.

대외부채3백30억달러의 상당부분이 아르헨티나에대한 투자형식으로되어있어 수용도 가능하다.

이돈의 반정도가 敵國인 영국(로이즈은행을 비롯한 4개은행에 1백70억달러)이며 적을 돕고있는 미국(퍼스트·내셔널·뱅크·오브·보스턴에 90억달러)에 진빚이다.

미국은 포클랜드전투가 가열됨에따라 아르헨티나에 굴욕적인 패배를 주지말도록 거듭 영국에게 촉구했다.

아르헨티나의피해와 굴욕감이 크면 클수록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제국의反美감정은 거세어질것이며 후유증치유가 어렵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레이건행정부의 南美정책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냈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달린 남서양방위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역할을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아르헨티나의 패배가 미국의 영국지원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 사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때문에 서반구의 맹주를 자처하는 미국의 영향력도 감퇴하고 이틈을 탄 소련과 그대리인 쿠바는 아르헨티나에 발판을얻어 중남미진출에 더욱 기승을 부릴 여지는 커지고 있다.

인구 1천8백명의 조그마한 섬을 두고 벌인 「바보들의 전쟁」에서 영국은 체면만을 얻었고 아르헨티나는 굴욕적인 패배를, 미국은 명분을 잃고 아무것도 얻은것이 없는채 전투는 끝날것이나 전투의 종식은 새로운 분쟁의 시발을 예고하고있다.

【申相頓기자】

◇近衛隊 사열하는 엘女王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이 3일 버킹검궁에서 왕실근위대장 샌디즈경과 함께 근위대를 사열하고있다. 여왕의 근위대사열은 4년만에 1번씩 실시된다.

海外토픽

로렌 완전自由요구

★낮外出 잠만교도소」거부

탈세죄로 복역중 석방신청

올낸 이탈리아여우 소피아·로렌양은 교도소 심사위원회에 의해 낮에는 외출이 허락되고 잠만 교도소에서 자면되는 「반자유」상태를 허용받았으나 완전한자유를 얻을때까지 교도소에 머물러있기로 결정했다.

「반자유」상태란 상오7시부터 밤9시까지 교도소밖을 자유로 외출할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로렌양은 교도소를 드나들때마다 번쩍대는 카메라 사진기자들과 외렵물들의 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완전 석방될때까지 교도소안에 있기로 결정했다는것. 【로마=UPI】

보리 아내와離婚

★위자료 문제로 큰고민

세계테니스계의 제1인자로 군림했던 비외른·보리는 지난80년 결혼한 루마니아의 테니스선수출신인 아내 마리아나·시모네스쿠와의 이혼이 거의 기정사실화돼있으나 돈문제로 결행을못하고있다. 【본=AP】

바티칸史上 첫파업

★平信徒노조처우개선촉구

바티칸의 평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4일 바티칸사상 최초의 파업을 단행한다고 발표.

바티칸의 평신도고용원 1천8백60명중 1천5백명을 대변하고있는 이노조는 두교대조가 각각 근무시간시작후 2시간동안 파업한뒤 정상근무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노조는 바티칸시 행정당국이 지난달 협상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바티칸시티=AP】

가미가제式 自殺

★自作비행기로 通告후

카미에·드뉘라는 올해59세된 어물가게주인이 스스로 조정하던 소형개인비행기를 프랑스 西北部의 한 촌락 인근철로에 충돌시켜자살했다.

드뉘씨는 이날 自作비행기로 이륙하자마자 관제탑에 자신이 『감정상 이유로』 2차대전당시 일본 가미가제(神風)특공대식의 자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통고했다는것.

그와같은 통고를 받은 관제탑은 30분동안이나 드뉘씨에게 착륙하도록 설득했으나 그는 이에 아랑곳없이 기수를 지상으로 향해 철도위에 비행기를 처박았다. 【아베예(프랑스)=AP】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메아리

新版 노예수출

최근 外紙보도를보면 소련은 사할린(樺太)을 비롯한 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서 북한이나 월남노동자를 대량 고용하여 광산개발등에 투입하고 있다한다. 브레즈네프는 작년11월 黨中央委전체회의서 금년도 경제계획을 심의할때 특히 『시베리아와 極東開發에 새 巨步를 내디뎌야 하겠다』고 연설한바 있다.

시베리아開發에서 소련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勞動力不足이다. 그 다음이 사나운 氣候조건이다. 광활한 시베리아땅의 90%는 凍土에속하며 한겨울엔 기온이 영하30~50도로 떨어지기 예사이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地球내의 몇군데남지않은 에너지와 資源의 寶庫로 지목되고있다. 그래서 日本을 비롯한 몇몇 西方선진국이 한때 그 開發에 協力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러 「惡條件」들이 그런 意思를 대부분 좌절시키고 말았다.

최근 共産越南은 소련으로 더욱많은 勞動者를 보내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勞動輸出」내막을 안 西方측 매스컴들은 그것이 곧 「노예수출」임을 똑바로 지적해댔다. 왜냐하면 越南이 진 外債 16억달러의 대부분은 소련에서 꾼것인데 그 빚을 갚기 위해 越南은 젊은 人力을 소련으로 파는 때문이다.

월남의 또하나 〈엑소더스〉는 소련 국영항공사의 「아에로플로트」로 이루어진다. 이 비행기를타고 하노이서 모스크바까지갔다 거기서 소련내 개발지역으로 흩어지는것이다. 이 노동자들을 일컬어 〈플로트 피플〉이라고 한다. 「보트」대신 아에로플로트를 타고 고국을 떠나가는 까닭에서다.

세계도처에서 하도 「노예노역」을 수출한다고 혹평해대니까 월남공산당기관지 「난 단」은 최근 다오·티엔·티勞動相의 글을 싣고 『소련이 越南의 이익을 위해 노동협력을 하는것』이라고 오히려 역설적 해명을 가했다. 소련의 「이즈베스티아」紙도 『7천명의 越南학생이 기술습득을 위해 소련에 왔다』며 능청을 떨었고 「타스」통신은 『그들은 임금의 일부를 월남으로 송금한다』고 한술 더 뜬 보도를 하였다. 한데 이 타스보도를 받아쓴 월남통신은 「送金」 부분을 쏙 빼버렸으니 필시 거저 착취당하는 노역수출인것만 같다.

빚대신 팔려간 勞動者들이 설사 「送金」을 한댓자 과연 어느정도나 될까. 대부분은 소련에 그대로 바쳐지고 떡고물같은 「送金」이 있었다면 그것은 越南共産政府가 가로챘을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들이다.

사할린탄광에 갔다는 北韓노동자는 時計를 밀반출해나오다 소련관헌에 들켰다는 보도까지 덤으로 전해지고있다. 어차피 공산집단에 떼먹힐 送金일진대, 그 보다는 차라리 時計라도 몰래 갖고 나왔을지 모른다.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토론토 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곧바른
교민사회를 위한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MINTZ AND PARTNERS
56 APEX RD. TORONTO

공인회계사 심상수 787—0155

自殺한 金常起씨 은행돈86억 流用

——4년7개월동안 256회에 걸쳐

去來者들 거의가 私債업자
朝銀, 관련行員22명에「待機」

4년동안이나 은행돈을 빼돌려 쓰다가 이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4월19일 자살해버린 前朝興銀行明洞지점차장 金常起씨(37)가 유용해쓴 돈은 은행측이 당초 발표했던 9억6천만원보다 8배나 더 많은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朝興은행의 宋基台상무(행장직무대행)는 4일 자살한 金씨가 지난 4년7개월동안 2백56회에 걸쳐 은행돈을 유용해 썼으며 그총액은 86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중 27억원은 金씨가 사채이자지급을 위해 개인적으로 발행한 가짜통장및 증서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내주지않고 회수해 버렸으며 9억원은 부동산등 담보가 잡혀있어 은행손실액은 50억원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自殺한 金常起씨

조흥은행은 이사고와 관련 朴廣鍾감사를 이미 사직시켰으며 高秉燦明洞지점장등 22명의 관련은행원들을 대기발령하는등 문책인사를 하는한편 金씨와의 공모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한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金씨는 中央지점대리로 근무할때부터 시작해서 小公洞(대리), 團絲洞(차장), 明洞(차장) 지점등을 거치면서 4년7개월동안 사채업자들의 돈을 예금으로 끌어들여 가공인물명의로 예탁시킨뒤 예금주 몰래 이돈을 꺼내 써왔다. 金씨가 꺼내쓴 예금은 거의 전부가 사채업자들이 꿨돈(자금조성비용)을 받고 예금한 돈이라고 은행측은 밝히고 있다.

金씨는 은행에서 빼돌린돈을 자신이 경영하던 元振무역 元振바우등의 사업자금으로 쓰고 元振프로모션을 설립해서 권투선수들을 양성하는한편 체조협회회장직을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조흥은행측은 金씨와 관련한 예금자중 정당한 예금자들에게는 전액예금을 내주겠으나 비정상적인 거래자에게는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한뒤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예금자들은 신분노출을 꺼려 예금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告發하면 立件" 서울地檢

검찰은 지난5월10일 朝興은행측으로부터 金常起씨의 거액예금유용사건에대한 당시 은행장 林在珩씨 명의의 「사실조사의뢰서」를 받고 사건개요를 검토했으나 金씨가죽어 공소권이없는데다 은행감독원자체조사로 진상이 드러난후에야 다른 은행원들의공모여부에 대한 수사가가능할 것으로 판단, 일단수사를 유보해왔다.

검찰에 의하면 당시 은행장 林씨가 대검에찾아와 유용액수도 정확히 밝히지않은채『당은행 明洞지점 차장이던金常起씨가 거액의 예금을 유용하고 죽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뿐인 타이프지 1장의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는데 대검은 이사건을 서울지검 특수3부로 이첩했고 李明載검사에게 배당됐었다.

그러나 李검사가 그직후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수사팀에 차출돼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데다 사건성격상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의 자체조사가있어야 할것으로보고 두 기관에서 자체조사토록 처리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특수3부 黃相九부장검사는『재무부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유용액수및 수법등 구체적인사건내용의 통보와함께 관련은행원의 고발조치가 있으면 정식입건, 이들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管理費 사취 所長등 4명에 令狀

【大邱】대구西部경찰서는 4일 아파트 관리비를 사취한 西區中里洞32 中里아파트 관리소장 洪화식씨(42)사무장 郭순돈씨(42)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벙커C유를 훔쳐판 이 아파트 보일러기사 李상용씨(27)운전기사 具무용씨(23)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소장洪씨와 사무장郭씨는 지난해10월 주민들로부터받은 수도요금 4백13만원을 멋대로 유용, 제때 납부치못해 연체료를 물게되자 지난해12월18일 평소 거래해오던 D석유판매소에 부탁, 41만원짜리 가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이돈을 관리비에서 빼내 연체료를 냈다는 것이다.

또 보일러기사 李씨등 2명은 지난해 12월22일 하오4시께 아파트에들여오던 벙커C유1만ℓ가운데 2천ℓ를 빼내 시중에 판혐의다.

忠南女中에 하룻밤 두번불
경찰, 불만學生 放火로추정

【大田】大田市中區牧洞26 충남여중(교장김용완)에서 3일밤과 4일 새벽 사이 2시간 간격으로 원인모를불이 두번이나 일어나 교실안의 책상등을 태워 9만여원의 재산피해를냈다.

숙직교사 성기수씨(48)에 따르면 3일밤 10시께 본관건물 한쪽편에설치된 화재경보기가울려 복도로 나가보니 1학년10반교실에서 불길이 치솟아 복도에놓여있던 소화기로 불을껐는데 4일새벽 1시께 또다시 1학년6반교실에서 불길이치솟아 소방서에신고, 10분만에 진화했다는것.

경찰은 교실벽이 시멘트로 돼있고 불이난 6반교실과10반교실은 3개교실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어 불길이 번질요인이 없는데다 6반교실은교탁에서 10반교실은 책상에서발화한점으로 미루어 방화로 단정, 학교에 불만을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있다. 【聯】

"친척2명 찾아왔다"
의식회복한 洪垂군 진술로 추적
냉천동 殺人사건

속보=서울西大門區冷泉洞3모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중태에빠졌다가 의식을회복한 장남洪垂군으로부터 사건당일밤 집에친척2명이 찾아왔었다는사실을확인, 金모씨(25·충북淸州市)와 金모군(19·모전문대생) 등 친척2명의 행방을 찾는한편 처음부터 용의자로 지목했던 李모씨(35·전과3범)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있다.

洪垂군은 사건이 나던날밤 9시께『영태아저씨가 대학생아저씨와 함께 집에 왔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범인일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추적키로한것인데 李모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있는것은 3일밤 탐문수사에서 재수생 孫모군(20)이 李씨집 골목에서 마주쳤다는 청년의 인상착의가 李씨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다른친척 金모씨는 중학을 중퇴한뒤 고향인 淸州에서건어물행상을 하다가 지난달초순부터 쌀가게를하는 아버지(52)가 사준 1톤포터트럭과 현금1백만원을 밑천으로 서울·釜山등지에서 슬리퍼를 구입, 충북일대의 시골을 다니며 팔아왔는데 지난달28일께 서울에서 슬리퍼등 신발 1백60만원어치를 사와 고종사촌 누나인 숨진李씨집을찾아와 모자라는 대금을빌어달라고 한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현장과 목격자들에 대한 탐문수사결과를분석, 범행시간은 2일 하오9시30분～11시 사이로 추정하고 2층계단에 난 도끼자국 1개를 찾아내 범인과 숨진 李씨가 다툰 흔적이 있는 사실도 밝혀냄으로써 도끼를 찾기위해 李씨집 내부와 마당등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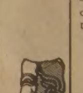
또한 경찰은 李씨집화장실 벽에서 4～5개의 지문을채취, 감식을 의뢰하고 범인이 훔쳐간 케논카메라 2대의장물품표를 작성, 장물수사도 아울러 펴고있다.

「마담智勇美」 제12대 女軍단장 金賢順대령
갓마흔 未婚女 "賢母良妻의 産室이죠"

제12대 여군단장 金賢順대령 (사진)의 취임은 세대교체의 폭이 깊고 템포가빠른요즘 세태와맥이통한다.

갓마흔의 미혼녀인 金대령은 간부후보11기 출신으로 5기인 柳石姬대령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어받음으로써 최연소단장이 되어 여군수뇌부가 더욱 젊어지는계기를만든것이다.

여학교시절 (全州여고32회) 배구와 농구를했다는 金대령은 1백64cm의키에 균형잡힌 몸매와 수려한 용모를가진 침착한여자。그러나 「軍人」이다.



여군지휘관으로 잔뼈가 굵은 탓인지대화에서그나이또래의시정의여인과같은 융통성을 허용치않는다.

『옛날에는「바람둥이」들이 더러여군에 갔다던데…』하고 가시돋친 농담을 던져보지만 그녀의 나직한 톤의음성과 차분한자세는 동요의빛이 전혀없다.

『여담인데요, 여학교때 내리3년 반장을 했었읍니다。앞장서서 동료들을 통솔하고픈 습성이 이때 생긴것같고 그것이 장교가된 동기인것 같아요…』

고교를 졸업하던해인 61년, 소위에 임관, 21년만에 대령진급과 함께 「마담智勇美」(여군단장의 애칭)의자리에 앉은 金대령은『간부후보생 깃수 (11기)가 좋다』고 했더니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미국OAC연수를 다녀온 金대령은 중령때까지 「영어하는 여군」으로 군관계 공식행사때마다 꽤나 바빴으며 외국군사사절의방한때는 부인안내역을 단골로 맡아왔다.

여군의 숫자가 전군의 8%에 이르고 해마다 여군을 늘려가는 미군의 경우 남자군인과의 풍기문란행위가 문제가 되고 임신과 미혼모의 급증으로 전투력약화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우리 여군의 병영생활은 어떠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남자 군총수는 긴장감이 잔뜩 드러나 보이는 눈매로『군풍기는 정신교육에서 좌우됩니다。우리여군은 현모양처의 산실이죠』라고 말을 자른다.

오늘의 여군은 여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있다는게 그녀의 지론。

이같은 사실은 얼마전 임관한 29기 여군사관후보생의 선발경쟁률이 자그마치 8·8대1이나 되었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은장도, 대나무와 거울이 그려진 배지를 단 수준높은 「智勇美」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여군에도 이제는 한명쯤 스타가 탄생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申鉉鉦기자】

컴퓨터教育 엉망이다
私設학원등 理論만 가르쳐

사설학원과 고교, 대학 (전문대포함)에서 실시중인 컴퓨터교육이 엉망이다. 컴퓨터기능인의 수요가 증가하고있고 지난 5～6년동안 각종 컴퓨터교육기관이 많이 나타났으나 이곳에서 실제시행되는 교육의 수준과 내용은 놀랍도록 원시적이다.

사설학원의 경우 컴퓨터교육과정 6개월이 다끝나도록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는 졸업생이 있는가하면 일부 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기재로는 기초시설인 단말기 (터미널) 하나없이 말로만 교육을 시키고있는 실정이다.

機材구경도 못하고 「資格證」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육내용에 커다란혁신이없는한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은 답보상태를 면치못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관계당국의 관심과 과감한투자를 호소했다.

서울의 7개등 전국에14개가있는 컴퓨터 사설학원의경우 대부분 눈에보이는설비하나없이 교과서에 의한 이론교육만 실시하고있는데 이들학원들은 컴퓨터 시스팀을 보유하고있는 컴퓨터센터등과 형식적인 임대계약을맺은뒤 교육용 최신 컴퓨터를 보유한양 선전하고있다.

실제로 수강생들이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과제를미리작성해온 프로그램을 미리 임대계약한 컴퓨터센터등에 갖고가 체크, 맞고 틀리는 결과만 알려주는편법을쓰고있다.

2개월전 모학원을 나온 金達洙군(18·서울永登浦區堂山洞)은 『매월4만5천원씩주고 6개월코스를 마치는동안 실습은 고사하고 컴퓨터구경조차 하지못했다』면서 친지의 소개에 의해 「컴퓨터전문가」의 자격을 갖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망신만당한채 그만두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72년부터 교과목에 컴퓨터강좌가 채택된 고교의 경우도 실습용기재와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

81년현재 전국1천4백89개 고교가운데 불과 10분의 1도안되는 1백6개교에 1백50여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들도 터미널을 설치할수 없는 미니나 마이크로컴퓨터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교사들도 90%가량이 전공교육을 받지않은 사람들로 각학교의 형편에따라 다른기관에 위탁돼 2주～6개월의 단기교육만 받은정도.

비교적 시설이잘된 京畿고교의 경우 1·2학년에서 각 30명씩 특활반을 모집, 방과후 2시간씩 교육하고 있는데 12명에 1대꼴인 셈으로 희망자는 2백여명 되지만 시설부족으로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

대학의경우 19개대학및 7개전문대에 전산학과가 있고 4개대학에 전산원이 설치돼있을뿐이다. 지난 70년 국내최초로 전산학과를 설치한 崇田大의경우 10대의 터미널을 보유, 학생실습에 이용하고있는데 학생수가 5백여명에 비하면 50명에 1대꼴로 전문교육에는 매우 부족한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유컴퓨터를 교육용보다 학사관리 또는 돈을 벌기위해 일반기업체등으로 부터의 전산용역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교육목적을 위한 사용률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H사 전산실장 韓福男씨(45)는 『사설학원은 물론4년제 정규대학졸업자도 컴퓨터의 기본원리만 앵무새처럼 외울뿐 실제로시켜보면 장님과마찬가지』라며 각교육기관의 성의있는 교육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컴퓨터교육의 부재를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본등 선진국과같은 자격제도의 정착을 주장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76년부터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정보처리분야에 대한 자격시험은 있으나 이자격증을 취득해도 구체적인 특혜가없어 전문가양성의 유인체제가 안돼있는 실정.

과기처 분석에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종사자수는 1만2천4백77명 이지만 수요는 계속늘어 내년도에는 두배에 가까운 2만6천3백명, 오는 86년에는 5만7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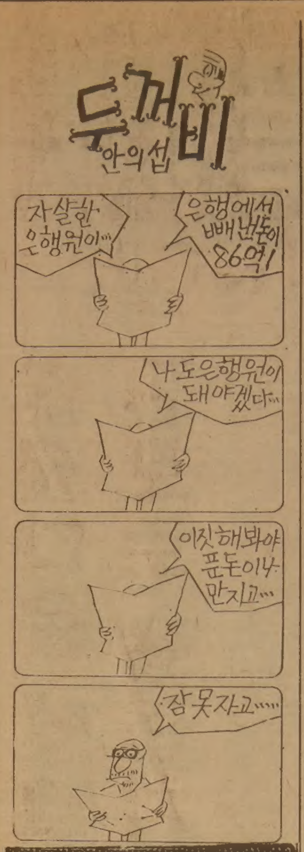
【金宗來기자】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교재용 컴퓨터가 반드시있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은 실습용이없어 이론으로써만 가르칠수밖에없다. 사진은 컴퓨터설비가 비교적 잘갖춰진 서울舞鶴여고의 컴퓨터교실.

造船所 사다리줄끊겨 셋死傷

【釜山】4일새벽 3시께 부산影島區蓬萊洞4가 대진조선도크의 신조선셀렌호(6천6백톤)에서 건조 작업중이던 공원 최점두씨(40·東萊區久瑞洞376) 등 3명이 높이 4m의 받침대에서 떨어져 최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윤순갑씨(30·影島區蓬萊洞5가86) 등 2명은 중상을입고 인근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사고는 최씨등 3명이 새로 건조중인 셀렌호 선미부분의 키를 조작하기위해 와이어에 달린 나무사다리를 타고 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 변을당했다. 【聯】



1億6千萬원「낙찰계詐欺」로 鑛山村영세민들 목돈꿈깨져

【旌善=이동로자부】광산근로자들과 영세민들이 목돈을 마련키위해 가입했던 낙찰계가 깨져 2백여명의 계원들이 울상을 짓고있다.

旌善경찰서는 4일 계금 1억5천9백50여만원을 부도낸 계주李輪伊여인(47·강원旌善郡舍北邑舍北4里1반)을 사기죄로 입건했다.

旌善경찰서에 따르면 계주李씨는 지난76년부터 광부, 구멍가게상인, 선탄부, 가정주부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해오면서 계를 낙찰시킬때 미리 준비해온 불참계원들의 응찰표가 낙찰되었다고 계원들을 속이고 낙찰된 계금을 가로채는등의 수법으로 64회나 계금을 유용해 왔으며 4구좌밖에 가입하지않은 權한석씨(50·강원旌善郡舍北邑舍北8里5반)에게 22구좌나 가입한것처럼 계원들을 속이는등 그동안 1억5천9백5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계주 李여인은 63명의계원들이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6백30만원짜리를 비롯해 5백57명이 10만원씩 내는 5백70만원짜리등 4개의계를 운영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계원들은 계주李여인이 낙찰장소를 舍北시장 유내식당과 계주의집등으로 분산시켜 그동안 낙찰부정을 잘몰랐으며 李여인의 남편文모씨(47)가 S탄광 간부로있어 믿어왔다고 말했다.

양수기用 電氣工事 경비 최소30만원…農家큰부담

【木浦】전남新安·務安·咸平군등 남부지역농민들은 영농기를 맞아 양수등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고 있으나 전기를 끌어오는데 따른 경비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농민들에따르면 본격적인 영농기를맞아 양수기등을 가동해야하나 한전이 공급하고있는 전원에 연결하는데 공사비가 수십만원씩 들어 어려움이 크다는것.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면 1백m이내의 공사비는 부가세포함 5만5백67원, 2백m이내 31만6천4백4원 3백m이내 94만6천3백52원인데 농민들이 전기가설을 하려면 대부분 2～3백m거리가 떨어져있어 최소한30만원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있다.

특히 新安郡관내의경우 지난68년 한해이후 지하수개발에 성공, 양수기이용이 늘고있으나 전기가설에 경비가 많이들어 수원을 두고도 손을 쓰지못하는 사례가 많다는것이다. 【聯】

8백여만원 뜯어내 油類운송업자 威脅

【釜山】부산지검 수사과는 선박유류를 훔쳤다고 운송업자를 위협, 8백여만원을 갈취한 부산 影島區大平洞2가204 郭炳完씨(30)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郭씨는 지난1월22일 蔚山에서 선박유류운송업을 하고있는 姜모씨(51·蔚山市長生浦洞)를 찾아가 유류를운송할때마다 대량의 기름을빼내 팔아먹은사실을 알고있다며위협한후 8백여만원을 받아챙겼다는것.

검찰은 운송업자인 姜씨가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유류를 수송중 절취했는지 여부에대한 수사도 계속하고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한국일보文化센터 開講
受講접수 ☎722-4161

週刊女子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섹스의 社會學
•한국 [illegible] 人脈을 캤다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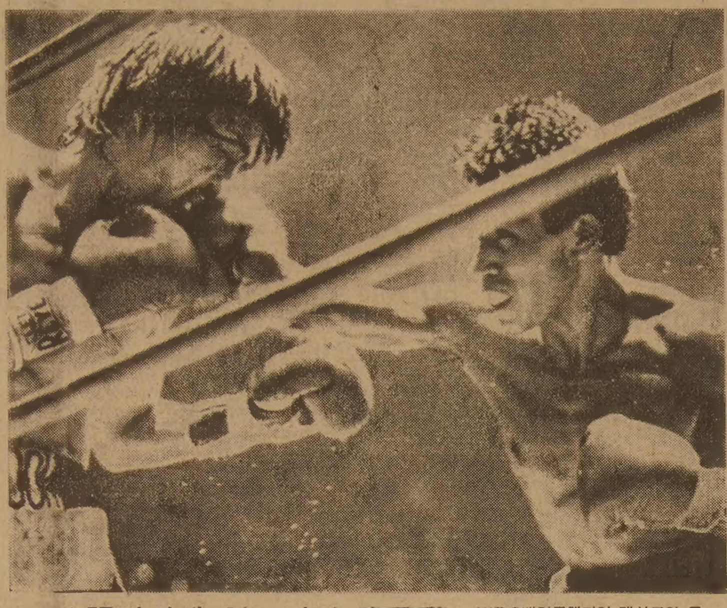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5回에 찬스놓쳐 끝내恨

WBC 밴텀級 타이틀戰 李承勳 11회KO敗

奇襲다운 뺏고도 계속劣勢
핀토르 強펀치 無防備허용



◇強펀치에 일그러진 李承勳 WBC밴텀급챔피언 멕시코의 루페·핀토르가 도전자 李承勳의 안면에 강한 라이트펀치를 퍼붓고있다。 핀토르는 11회 KO승을 거두었다。【로스앤젤레스 3日AP電送=聯合】

【로스앤젤레스支社】 한국의 李承勳(22)은 4일낮(한국시간) 이곳 올림픽 오디터리엄 특설링서 벌어진 프로복싱 WBC 밴텀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루페·핀토르(28·멕시코)에게 11회46초만에 KO패, 두차례의 세계정상도전에서 모두 실패했다。

李는 이날 5회종료30여초를 남기고 가슴적인 짧은 라이트펀치를 핀토르의 머리에 적중시켜 한차례 다운을 빼앗았으나 이후 핀토르의 면돗날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훅을 계속 허용, 열세에 빠졌으며 11회서 옆구리와 안면에 어퍼컷과 좌우훅을 무수히 얻어맞자 주심 투디·조단씨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핀토르의 KO승을 선언했다。

李는 지난80년2월 WBC 슈퍼 플라이급초대 챔피언 결정전서 라파엘·오로노에게 판정패했었다。

李는 이날 패배로25전21승(7KO) 4패를 기록했으며 핀토르는 54전48승(57KO) 1무5패를 마크했으며 타이틀8차방어에 성공했다。

李는 밴텀급 한계체중에 1파운드 가벼운 1백17파운드로 링에올랐으나 핀토르는 1차 계체량에서 1백50그램을 초과, 2차계체량에서 가까스로통과됐다。

5회의 호기를 놓친것이 한이었다。 5회 종료 50여초를 남기고 李는 라이트훅을 안면에맞아 비틀했으나 투지를 잃지않고 좌우훅과 원투스트레이트로 역습한뒤 라이트클린펀치로 기습녹다운을 뺏었다。

핀토르는 6회에 접어들자 9천여 멕시코관중들의 응원을받으며 좌우훅, 레프트 어퍼컷, 스트레이트로 무섭게 반격, 종료 40여초를 남기고는 李의복부에 강타를 폭발시켰다。

7회서 李는 코피를 쏟기 시작했다。 李가 큰 충격을받은것은 8회。 핀토르는 이미 수비력을 상실한 李에게 레프트를 던지며 접근, 계속 복부를 두들겼다。

李는그로기상태에빠졌다。 럭키펀치가 터지지않는한 이길수없는 상황이었다。

李는 10회중반 필사적으로 버티며 저항했으나 너무 많은매를 맞은뒤여서 펀치에 힘이없었고 푸트워크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번 타이틀전에서 핀토르는 17만5천달러(한화약1억2천5백만원), 李는 3만달러를 개런티로 받았다。

「면돗날주먹」에 鬪志도 無爲
기대했던 逆轉劇 不發 아쉬움
펀치력·技倆서 實力差 뚜렷

한말로 실력차가 두드러진, 역부족의 승부였다。 5회 막판 기습 단발펀치로 핀토르를 쓰러뜨렸을때에는 오로노를 잡던 金喆鎬처럼 통쾌한 역전극이 펼쳐지는것이 아닌가 한때기대를 걸었으나 펀치력과테크닉에서 李承勳은 핀토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핀토르의 펀치는 소문난대로 날카로왔다。 특히 왼쪽 스트레이트로 시동을걸고 오른쪽 어퍼컷, 왼쪽훅으로 이어진 3단공격은일품이었다。 핀토르가 체중조절이 잘된상태에서 링에 올랐더라면 李는 7·8회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을지 모른다。

지난날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에나가 맥없이 가라앉은 사례에 비추어 볼때 李는 비록 11회 KO패를 당했지만 최선을 다한것 같다。 안면과 복부에 많은펀치를 맞아 수비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지를 발휘, 열세 속에서도 반격펀치를 내밀어 잘 버티었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패했을 때 팬들은 돌을 던지지 않는다。

李承勳의 결정적 약점은 펀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오로노와의 WBC 슈퍼플라이급 초대챔피언 결정전서 2-1로 판정패 당했던것도 펀치력 때문이었다。

李承勳의 주먹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세계정상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프로복싱은 금년들어 약물중독 스캔들에 이어서 泰國 가짜선수 입국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프로복싱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팬들의 열광을 다시 모을 실력있는 선수가 기다려진다。【金仁奎기자】

한국등 13國參加
臺灣 존즈盃농구

【臺北3日CNA=聯合】 제6회 존즈盃 국제농구선수권대회가 13개국의 여자선수단 14개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5일부터 臺北에서 개최된다고 臺灣농구협회가 발표했다。

리그전으로 열리는 이번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美國, 스웨덴, 타이, 캐나다, 싱가포르, 英國, 프랑스, 濠洲, 필리핀, 벨기에, 홍콩과 주최국인 臺灣의 2개팀이 출전하게된다。

大統領盃 국제축구 熱戰13일開幕
한국·和 첫판激突

제12회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가 5일하오3시30분 서울운동장에서 한국대표팀과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과의 개막전으로 시작되어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9개국 10개팀이 참가하는 금년대회는 한국대표팀 PSV아인트호벤 오페라리오(브라질) 레버쿠젠(서독)등 4개팀이 우승후보로지목되고있다。 특히한국대표와PSV아인트호벤의 개막경기는 축구팬들의 관심사。 유럽프로축구에 진출, 2년만에 금의환향한 許丁茂가 고국의팬들앞에서 기량을 선보이기때문。 또한 네덜란드축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한국대표팀은 4일하오 慶協구장서 전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PSV아인트호벤은 이날상오 육사구장서 1시간가량 워밍업을마쳤다。

한편 이번대회에 참가하는 8개외국팀들은 4일하오 인도네시아를끝으로 모두 내한했다。

伊 世界大學生陸上 한국 銅메달 2개

지난2일 이탈리아 트리노에서 열린 세계대학생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했던 한국대학생대표팀은 남자8백m와 넓이뛰기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선수단이 현지에서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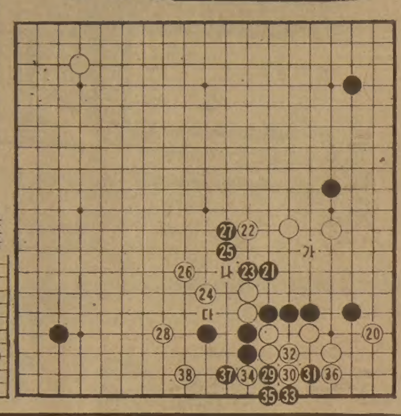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8백m에 출전한 金福柱(농어대)가 1분49초09를 기록, 3위를 차지했고 넓이뛰기의 金鍾鎰(농어대)도 7m65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1천5백m에 출전한 金顯旼(고려대)는 4위에 그쳤으나 4분25초91을 기록, 한국신기록(종전 4분27초05)을 수립했다。

◇美팀서 활약하는 趙榮增 美國의 프로축구 포틀랜드·팀버스팀에서 활약중인 趙榮增선수가 2일 北美축구리그(NASL) 로더데일팀과의 경기에서 상대팀선수와 볼을 다투고있다。【포틀랜드 2日UPI=聯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4譜 20~38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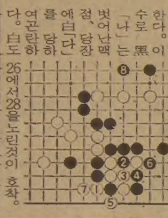


下邊에 때이른 戰雲

도전자는 白20을 두어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돌에 내리는 빗발을 보더니 『좋다』면서 얼른들어왔다。 그리고 여지껏 머리를 푹 숙인채 골똘히 생각하는 名人에 이끌리다시피 같은모습으로 머리를숙였다。 머리와머리의 거리가 30㎝가량, 자칫 부딪칠것만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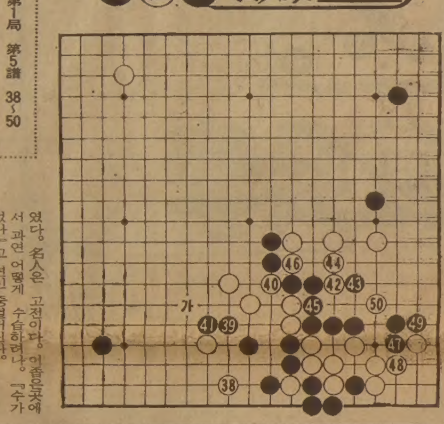
黑21은 8분。 결국 黑「가」의 절대선수를 배경삼고 탈출구를 열었다。 白22, 24는 돌의흐름。 이때 판위에 날아와앉은 파리1마리를 쫓듯이 하면서 둔것이 바로 黑25다。 「파리의 훈수?」 그러나 이것이 호착이라고 趙8단은말한다。 이수로 黑이 「나」는 맥점, 당장 白「다」에 벗어난 를 당하면 여곤란하다。 白도 26에서 28을노린것이 호착。 하변에 갑자기 전운이 감도는 느낌인데 여기서 마침 하오1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소비시간은 白이 2시간이고 黑은 1시간。

식사후 재대국하자 名人은 黑29에서 31로 껴붙이고 白36때 黑37로 잡았다。 여기까지 필연의 과정이라고한다。 도중 白32로 참고도는 黑8까지 된다치더라도 白이 좋을리가없다。 이익고 白38이 야무지게 떨어졌다。 黑은 어떻게 수습하려는지。【一凡】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5譜 38~50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右邊 黑馬 위기?

白38을 뜸들인 8분이 공격의급소였다。 黑은 우선 하변을 타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 11분간 고심끝에 39로 활로를 열고자했으나 白40이다 목적강타。 다음 42이하46의 급습수와 白「가」의 봉쇄를 보고있다。 名人은 다시금 19분을 생각하더니 우측을 나중일로 미루고 黑41。 물론 기세를 부린수다。 黑43으로 일단 맥을짚은데서 하오3시。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않지만 그만큼 한수마다 승부를 좌우하는 장면의 연속이다。

도전자는 마침내 白46으로 끊어 우측黑을위협, 지극히 유망한 처지에놓였다。 名人은 고전이다。 이좋은곳에서 과연 어떻게 수습하려나。 『수가 없나』고 연신 중얼거린다。 그리고 마치 「공연한 때」라도 쓰듯이 黑47, 49로 눌러막았다。 숫제 안은백이의자에 엉거주춤 쭈그린채 정부절 못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또보면 무슨 묘방이라도 있는듯이 표정만은 태연하다。

도전자는 여기서 결정타를 찾을생각일까。 아니면 黑의 반격을 조심조심 다루며 공격의 여득을 보자는 심산일까。 한번 손에 쥐었던 「돌」을 통에도로 넣고는 자리를 떴다。 정신이 흥분하고 피로가 겹치면 소변이 잦아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따라고 떨어진 白50。 얼핏보면 이 한점으로 우변 黑은 헤어날 길이 없어진 꼴이다。 名人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는다。【一凡】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⑨

『야아, 기욱군 좀 어지히 몸달게 할수없나? 뭐든지 정도란게 있는 법이야。 더군다나 애교는...』

일부러 수지를기다리고 있었던듯 혼자서 텔리비전을보고있던 수철이가 텔리비전을 끄면서 말했다。

『또 전화 왔었군요?』

『오면 여간。 전화통에 불날뻔했다』

『사람이 그렇게 가벼울까? 안달 부릴뻔 여자만도 못한 것 같더란』

수지가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야아, 이자식아, 좋으면 좋다고 그래, 그것도 다한때야。 결혼만 해봐라 국물이나 있나』

『그러니까여자쪽에선질질끌수록 좋은거 아녜요?』

『그것도 정도가있다니까。 남서방 오늘 화가 버럭까지 올랐더라。 어디 좋은데 데리고 가서 마음을 껏 흥겹게 해주고 오늘이야말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가 아무 이유도 없이 빠져 달아나 버렸다며? 어딜 갔었니?』

『오빠하고 미스타 남, 언제적부터 그렇게 친했어요? 그런 걸 다 고해바치게?』

『잔말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그래서 오빠보고 구원을 청하던가요?』

『구원을 청하는게 아니라 은근히 협박을 하더라』

『협박이요? 아유 재미있어라。 결혼 안해주면 죽겠대요? 죽이겠대요?』

『좋아하지마 이 자식아。 너도 나이 생각을 좀 해야지。 죽지도 죽이지도 않고 깨끗이 단념을 하겠대。 더이상 병신 노릇하기 싫다는 거야。 병신 노릇의 데드 라인이 오늘까지라니까 아직도 기회는 남았단다』

수철이 느긋하게 수지를 놀렸다。 그러나 기욱이 했다는 소리가 전적으로 꾸며댄 얘기만은 아닌것 같았다。

『오빠, 오빠가 혹시 미스터 남을 그렇게 사주(使嗾)한거 아녜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인데。 그렇지만 여자다루는 법에 대해선 조금 귀띔을 했지。 그 친구 영 답답해서。 다 좋은데 박력이 모자란』

수철이 짐짓 능청을 떨고 있었다。

『오빤 도대체 지금 누구 편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대두。 그렇지만 인류가 크게 두 패로 갈라져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아마 남자와 여자로 갈라질걸。 박애 없을 걸』

『남군만한 신랑감도 드물다。 집안도 좋고, 돈도있고, 너한테 죽자구나 반했고, 들어온 복 내치지 말아。 갈 때 되면 가야해。 내가 안 섭섭하겠냐만 놓쳐선 안될 사람이야』

이복의 큰 목이다』

수철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심란하게 말했다。 냉혹한 고 이기적인 터이 부드럽게 흐려보였다。 그럴 때 수철이는 오빠라기 보다는 아버지 같았다。

수지도 가슴이 뭉클하면서 잠시 심란해졌다。 그러나 남매간의 오랜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해칠만한 건 아니었다。

수지의 볼에 아직도 인제 막 얻어맞은 아픔이 남아있었다。 은표주박을 가슴에 울리고 인재와 마주앉았던 동생의 모습도 선연히 떠올랐다。 그 하찮은 걸 왜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 동생은 아직도 기억할까? 다섯살적의 전쟁과 허기와 그리고 그 하찮은 것에대한 집착을。 그 하찮은 것이 모든것을 빼앗아다는 것을。

流星의 賦 <40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⑲

감사의 의견과 조헌의 의견이 맞서 타협이 되지 않는 가운데 감사의 속셈이 드러났다。 감사는 조헌과 합세하여 금산의 적을 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조헌의 북상을 방해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조헌이 북상하면 반드시 임금을 배알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사인 윤선각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인데 조헌은 감사를 좋게 말하지 않을 것인즉 감사 윤선각은 그것이 두려웠던 터였다。

한편, 의병에 참가한 자제들의 부형은 관가에 잡아가두어 조헌의 군에서 탈락하는 조건으로 석방해 주는 계략을 쓰고, 열읍(列邑)에 서찰을 띄워, 의병에게 협력하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고 했다。 그렇게 한 결과 의병속에 섞여 있던 관료들은 물론 뜻이 약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버리고 조헌의 휘하엔 7백명의 의사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도 조헌은 금산성의 적을 소탕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조헌은 전라감사겸 순찰사인 권율에게

『8월17일을 기하여 금산성을 공격할것이니, 권장군께서는 이에 협력하시와 같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서면을 전달한후 15일, 공주를 출발하여 유성으로 진출했다。

유성에서 승장(僧將) 영규(靈圭)가 수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별장(別將) 한사람의 다음과같은 진언이 있었다。

『금산의 적은 만(萬)을 넘으며 정예하기 짝이없다고 들었읍니다。 이런 군사를 상대로 천(千)에 미달한 오합지졸로써 어찌 승산이 있겠읍니까。 정세를 보아 호기를 얻으면 공격하기로 하든지, 또는 행조(行朝)의 분부를얻어 진퇴를 결정하든지 하는것이 옳을줄 믿사옵니다』

조헌도 이 별장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시인했지만

『지금 기고만장한 적을 앞에하고 어찌 성패와 이해만을 따질 수 있겠소이까。 주욕(主辱)에 신사(臣死)라고 하지 않았소。 이 충성만을 관철하면 승패는 이미 안중에 없을 것이오。 비록 승리는 못하더라도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함으로써 우리의 의기를 떨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그 뜻을 피력했다。 병졸들은 그 뜻에 깊이 감동하여 조헌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이때 영규의 말이 있었다。

『전라감사 권율의 화약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겠소。 그의 출사(出師)에 대한 약속을 받지도 않고 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경거(輕擧)가 되지 않을는지요』

조헌은 조용히 눈을 감고 심사(深思)한 다음 답했다。

『나는 그에게 8월17일을 공격기일이라고 하고 협력을 구했소。 그의 화약을 들어 결행한다는 말을 하진 않았소。 비록 그의 협력을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해 놓은 공격일자를 내가 변경할 순 없소』

그러자 영규의 부하들은

『필패(必敗)할 싸움에 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고 했지만 영규는

『주장의 뜻이 철석 같은데 내 어찌 하랴。 승패와 생사는 재천이니라』

하고 그의 참전을 선언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ㅇ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햇숀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ㅇ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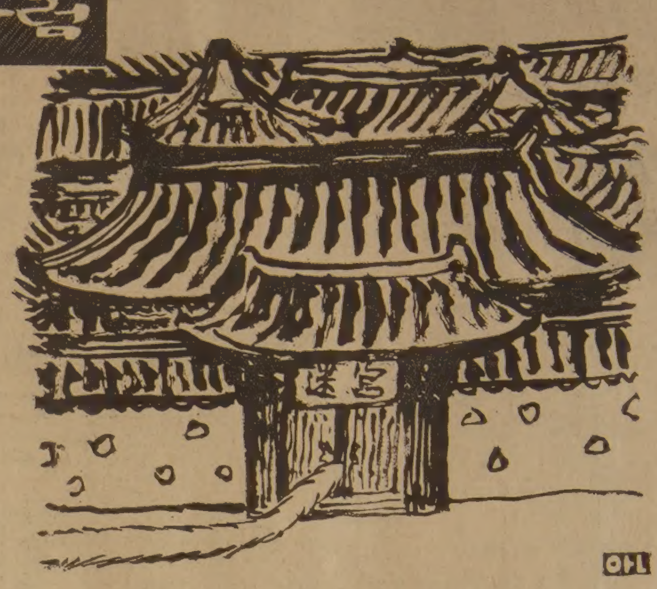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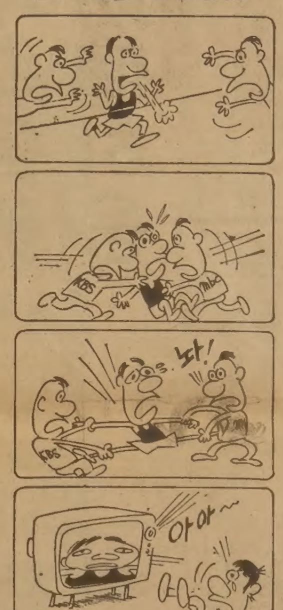
안의섭 時事漫評

왕년의 名消防官도 이젠 불구경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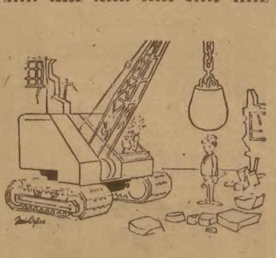


張女人 꼬리…

마스터 펀치 吉松漁



海外걸작漫畵



『사장님, 봉급을 올려 달라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Hey, boss, any action on that request of mine for a raise?"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④

남성에게 있어서 섹스의 대상으로 가장 매력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그 순위를 매겨본다면 그 첫째와 꼴찌는?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더하고 있는 「朴承薰교수의 섹스特講」 이번호에서는 오르가슴 때문에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과 여의 본질등을 적나라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女子도 女子나름

대자연 속에서 잠시 숨쉬다가 인간이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는 일은 중요하다。여자가 스물 세 시간 꿈꾸고 였는 생각중 스물 세시간까지가 남자가 엉켜드는 섹스에 관한 생각이라고 한다。그중 한시간 남은것으로 반찬생각、텔리비전채널 바꿀 생각、내일 입을 옷생각등을 한다。그러나 그것도 상대적인 남자기호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역시 그 한시간마저 남자 생각하는것으로 보면된다。

인간이 이 넓은 우주공간에 나와서 잠깐씩 숨쉬다 가는 동안 하루 스물 네시간을 남자는 여자생각、여자는 남자생각으로 해뜨고 저물게 창조하신 조물주는 위대하시다。그래서 작가、몸은 연애니 섹시니 하는 것은 씨앗 보존을 위한 우주의 사기극이라고 했다。

아담과 이브때부터 줄곧 선악과 피해의식을 지니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인간과 고릴라、그리고 원숭이를 구분할 때 구조상 무지무지한 차가 나는게 아니다。다만 뇌수세포의 차이는 엄청나다。그 뇌수세포 속에서 포착되고 또 포착당하는 과정이 다른 동물과는 현저한 차가 난다。

비슷해 보이는 섹스생활인데도 일도(一盜) 이첩(二妾) 식으로 섹스순위를 기호(記號)로 생각해온 동양 선비들을 보아도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묘한 입맛을 기호로 구분해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남의 집 아내를 슬쩍하는 일을 섹스의 상승으로 두고、자기집 마누라는 제일 꼬랑지 순위에 위치시켜놓고 있다。자기 마누라에게는 기립이 안되는데도 첩을 보면 곧잘 기립된다 하여 설립(立)밑에다가 계집녀(女)를 달아 첩(妾)이라고 했다。

세번째、네번째 순서로 계집종을 건드리거나 직업여성을 시식하는 일을 위치시키고 있고 자기 마누라는 맨 끝에 두고 있다。즉 자기 마누라는 맛에 끼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다。

확실히 기이한 일이다。그 끼지 못한 마누라는 역(逆)으로 다른 이 눈에는 제일 으뜸인 일도(一盜)에 올라붙을 가능성과 참여자격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는것도 물론이다。그런데도 남자는 자기가 늘 지니고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곧 싫증을 내고 새로운 영토확장을 꿈꾸게 되어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 차이를 Woman gives sex in order to get love, Whlele man gives love in order to get sex。즉 여인은 남자가 지닌 사랑이라는 관념을 얻으려고 그녀 섹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남성이 관념적인 사랑을 홍얼대는 것은 그녀의 섹스에 깃발 하나 더 꽂아보려는 뜻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남겼다。

섹스는 십인십색(十人十色)으로 사람마다 그 기호、나이、이상형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점이 있기는 하다。남자는 구조상으로 영토확장욕이 여자보다 매우 스피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자도 여자 나름이다。강간죄로 복역한 어느 죄수가 자기 영토의 상당부분을 억지 섹스、즉 강간으로 얻은 거라고 실토한 수기에는 매우 주목되는게 있다。

어떤 여자이건간에 남의 이목이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억지 섹스」가 곧「좋아 섹스」로 둔갑되곤 했다는 보고다。이 경우 자기 남편、혹은 애인의 경우와는 색다른 깃발을 하나 더 소유하고 맛을 보아 과히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심증 일수 있다。

자기 남편이나 애인에게는 잘 서게 할수 없으면서 다른 남자에게는 강하게 일어서게 할수 있다는 자기 만족감과 자신력 회복의 여성본능 일수 있다。

「억지 섹스」가「좋아 섹스」로 둔갑、오랜만에 제맛을 만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같이 현명한 동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실로 인간같이 우매하고 처절한 동물도 없다。눈감고 뱅뱅、고추 먹고 맴맴。섹스면에서만은 고금동서가 제자리 걸음을 수만년 뱅뱅이쳐온 셈이다。

자기 밑에 깔린 마나님 대신 자기 회사 여자 경리사원 모습을 그리고 자기 위에 덮친 남편 대신 건장한 시장아저씨 소변 뿌리잡고 섰던 꼴을、뇌수속에 교대로 명멸 포착하여가며 처절한 소리까지 올리고들 있다고 못볼 것도 없다。

꾀낙같이 부드러운 감촉에서 아닌 밤중의 홍두깨로、또 장작개비나 무쇠가 들어와 박이는 듯한 진통에서 솜털같은 부드러움으로 교차시키는 뇌수감각에 따라 오르가슴이라는 것이 한번 오고、오기 시작했다하면 스물 네번 정도는 무난히 오는 여성도 나올수 있다。

까고 보면 모든 여성과 남성의 섹스위치는 처절하게 있다。인간의 위치를 창조주가 정하시되 천사보다는 약간 낮게、동물보다는 약간 높게 정하신 거라고 구약 시편에는 나온다。

동물보다는 높고 천사보다는 약간 낮게 정해진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여자를 통해 천사의 위치까지 피차 부드럽게 감아 올려가주는 오르가슴의 작업이 인간 위치의 큰 사명인거다。

자기 여인 속에 무수한 여인을 되살려가며 잘 봉사해 내는 남성은 인간의 참된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주어야 할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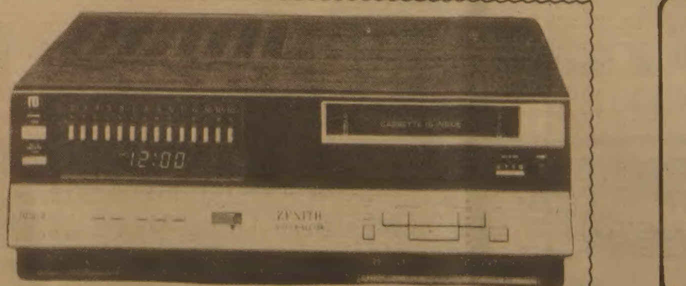
〈계속〉

특별할인대매출

ZENITH

$1,199.95
전 세일가격 $1,099.00
특별세일 $899.00

—— Model No. VR 89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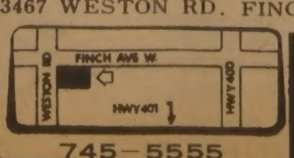
●24 HOUR AUTO RECORDER
●PICTURE SPEED SEARCH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사 과 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상점을 애호해 주신 여러 교민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ZENITH VIDEO가 이번에 본사로부터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면서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 정 운

한국 Video Film
Rent도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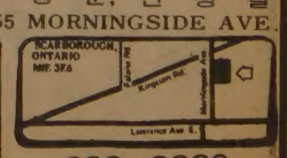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羅稻香의 「幻戲」

◇羅稻香

『영철씨, 저는 돈으로 말미암아 피를 팔고 고기를 팔았어요』하고는 그대로 영철의 팔에 힘없이 매달려 운다. 그러더니만,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정조를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조없는 더운 계집입니다. 제가 영철씨를 사랑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 쓰린줄 몰랐더니 영철씨의 사랑을 받은후 오늘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참으로 쓰리고 아파요』하다가, 『영철씨는 이렇게 더러운 여자라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저같은 사람이 영철씨의 사랑을 바랄수가 있을까요? 저는 영철씨! 다만 한가지 원할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영철씨가 저를 잊어주지 않으신다면 그외에 더 행복이 없어요』 〈作品중에서〉

■숨은 그림 찾기

연필 장총 제트기
깔때기 물고기 담뱃
대 종이비행기 장도
리 열대어 못

구성·權大雄

金東仁의 「金姸實傳」

◇金東仁

그 어떤 날이었다.

본시의 빛깔도 깜티티하거니와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에 깜티티한 위에 윤택까지 있고 봄을 타기 때문에 더욱 반질하게 검게 된 얼굴을 선생의 가슴앞에 디밀고 앞뒤로 저으면서 독본을 읽고 있던 연실이는 문득 선생의 숨소리가 괴상하여 가는 것을 들었다.

연실이는 눈을 들어 선생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아까도 선생이 술 먹은 줄은 몰랐는데 지금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점을 연실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선생의 얼굴에는 싱거운 미소가 나타나며 팔을 펴서 연실이의 어깨를 끌었다.

연실이는 선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에 직각하였다.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찾기

아이스크림 대접 팽이
붓 왕관 구두 한짝
새 갓 프라이팬
쓰레받기

구성·權大雄

本社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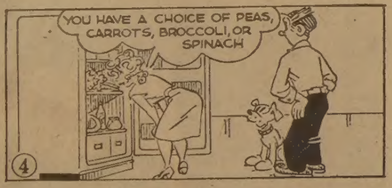
블론디

딘·영作

"오늘 저녁은 뭐지, 여보? 배가 몹시 고파".

"애들이 오늘밤 외출했으니, 간단한 쇠고기 구이나 먹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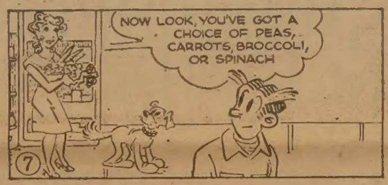
"야채는 뭐가 좋겠죠, 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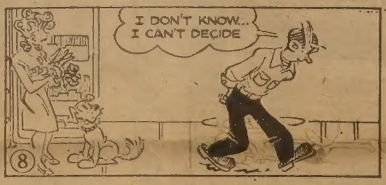
"완두콩,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중에서 고르세요"
※브로콜리=양배추의 일종.

"자, 어느걸 드실래요?"

"자, 여보…야채를 먹어야만 해요"
"결정을 못하겠는데"



"보세요, 완두콩,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중에서 고르세요"



"모르겠어…결정할수 없단 말이야"

"내 말 들어…저녁을 먹으러 당장 나가지"

"그래요, 이건 확실히 기분 좋게 사람을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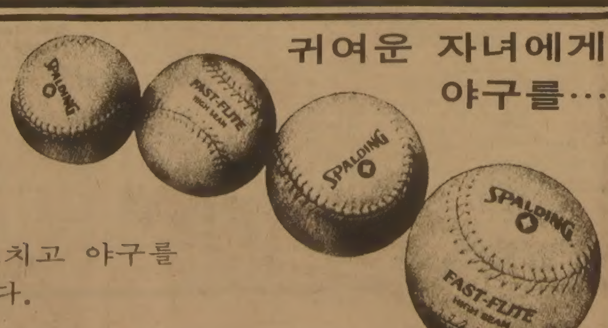
"쇠고기 구이를 먹겠어요"
"나 역시"

"그렇담 야채는 완두콩,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중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제1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리틀) 야구 대회

귀여운 자녀에게 야구를…



북미에서 야구는 일상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맨쉽을 체득하게 하며 아울러 교포 자녀간의 우애와 자부심을 키웁시다.

일 시 : 1982년7월3일(토)아침9시부터
⊙우천시는 8월17일(토)로연기(같은장소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구장2개사용함)
(CNE정문앞, 레이크쇼어×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1월1일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 2, 3등(에뉴얼 트로피)최우수선수상, 피쳐상, 타격상, 미기 감투상⊙선수 각자에게 기념품 증정
★OASA(온타리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규칙을 적용.

⊕ 볼크기(11인치)
⊕ 투수거리(33피트—10.1메타)
⊕ 베이스거리(50피트—15.2메타)
⊕ Bat(배트)길이(34인치이하)
직경(2과4분의1인치이하)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오후7시 한국일보회의실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박재선(755—6434) 이건영(598—3732)

〈소프트·볼〉

유니폼 없어도 무방함.

주 최 : 토론토 한국일보

후 원 : 토론토 한인회·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移民과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HEAR YOU' RE GOING TO L. A.

재삼자로부터 전해듣고 본인에게 다시 알아볼수있는 표현이 바로 I hear…의 표현이다。

「L. A.에 가신다면서요」I hear you're going to L. A. 「득남하셨다면서요」I hear you had a son. 「네。그렇습니다」Yes, I did. 「축하합니다」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Thank you. 이와같이 대화를 이끌어갈수가있다。

A : I hear you're going to L. A.
B : Yes, I am.
A : When are you leaving?
B : Tomorrw.
A : Are you flying?
B : No. I decided to drive.
A : L. A.에 가신다면서요。
B : 네。그렇습니다。
A : 언제 떠나십니까?
B : 내일입니다。
A : 비행기로 가시나요?
B : 아니오。자동차로 가기로했읍니다。

SHE TURNS ME OFF.

얼마전 평소부터 잘 아는 미국인 친구집에 초대되어 놀러갔을때의일이다。마침 친구의 13살짜리딸애가 「6백만불짜리의 사나이」Six Million Dollar Man 이라는 TV프로를 보고 있기에「너스티브어스틴(=Six Million Dollar Man)을 어떻게 생각하느냐?」What do you think of Steve Austin?라고 물어 보았더니 대뜸 He turns me on. 이라고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그 프로에 나쁜역으로 나오는 여자에 대해 같은 질문을했더니 She turns me off. 라고 하였다。물론 He turns me on. 하면 「그남자는 참 멋있다。훌륭하다, 매력있다」란 뜻이고 She turns me off. 하면 「그여자는 매력없다, 밥맛떨어진다」라는 뜻이다。이밖에도 「수돗물, 전기, 가스를 켜다」라고 하는경우에는 Turn on the water. (light, gae) 라고하고 반대로 끄다라고 할때에는 Turn off the water. (light, gas) 라고 하면된다。

A : I saw the new girl last night.
B : Good for you.
A : You don't sound too fond of her.
B : I'm not.
A : Why? She's really something.
B : I don't think so. In fact, she turns me off.
A : 간밤에 그새로운 여자를봤지。
B : 네겐 잘됐구나。
A : 넌 그여자를 좋아하지 않는것같이 들리는구나。
B : 좋아하지않아。
A : 왜? 정말 근사하던데?
B : 그렇지않아。사실은 그녀를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She's really something. : 그녀는 굉장하다。really : 「리얼리」가 아니고「rili」라고 발음함。

IT'S A PAIN IN THE NECK.

R. N. 시험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간호원 아파트에 역시 발표를 기다리는 미국인 간호원 지망생 친구가 놀러 왔다。시험에관한 대화 도중에 미국인 친구가 It's a pain in the neck. 이라고 하자, 목에 pain (통증) 이 있다고 오해한 교포 간호원이 Is it serious? (심하니?) 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It's a pain in the neck. 이란 싫지만 할 수 없이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It's something one doesn't like but must be endured anyway)을 가리키는 말이다。결국 그 미국인 친구가 한 얘기는 「시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다」는 Waiting for somebody is a pain in the neck. 라고 하며, 매일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이 꺼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할 때에도 It's a pain in the neck. 이렇게 하면 된다。

It's a pain in the neck. 을 줄여서 It's a pain이라고도 하며, 같은 뜻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는 It's a drag가 있다。「일요일인데도 근무를 해야되는것은 정말 지겨운일이다」를 말해본다면 It's a real drag when I have to work Sundays. 이같이 하면 된다。

A : Is Janice working overtime tonight?
B : Yes, because the second shift person is late.
A : Does she get paid for it?
B : No, she doesn't.
A : That's a real pain in the neck.
B : She doesn't want to do it, but she has to.
A : 제니스가 오늘밤 오버 타임하나요?
B : 네. 2교대조。사람이 늦었기때문이죠。
A : 시간외 근무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되나요?
B : 아니요。
A : 정말 지겨운 일이군요。
B : 그녀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되지요。

※endure : 견디다. 참다
overtime : 규정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
shift : 근무의 교체, 교대조
R.N. : registerd nurse (등록된 정식간호원)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7

지난 줄거리

충찬이는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 점장이들을 차례로 찾아 다닌다。컴퓨터 철학사는 팔월에 관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삼통의 곰보만신은 죽을 고비가 한번 더 남았다고 했다。청대문집의 박수무당도 죽을 수가 수두룩하다며 살이 꼈으니 조심하란 얘기였다。좋은 얘기는 믿고싶었고 나쁜 얘기는 불신하고 싶었다。

밤 늦게 전화가 왔다。은주 누나가 인터폰을 여러번 눌렀다。벽시계는 밤 열두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장충찬입니다。』

내 목소리는 잠기 가득했다。

『저… 서유리라고 합니다。기억하세요?』

『그럼요。』

나는 벌떡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기대 앉았다。명식이의 동정을 베푼 여자였다。설악산의 그 아름다운 밤을 결코 잊을 수는 없었다。

『밤 늦게 죄송해요。춘삼이 오빠 연락처를 까먹어서 그래요。급한 일이라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 드렸어요。』

춘삼이 형의 연락처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것으로 미루어 그녀의 생활태도가 크게 변한것 같았다。

『무슨 일 생겼어요? 내가 알면 안됩니까?』

뭔가 답답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나는 그녀에게 늘 빚을 지고 사는 기분이었다。그 빚을 어떤 방법이든 꺼보고 싶었다。

『춘삼이 형, 요즘 정신없이 바빠요。사업이 잘 안돼서 돈 꾸러 다니느라 정신없어요。나한테 얘길 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그쳤다。춘삼이 형이 벌려놓은 사업을 추스리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얘기해두 될지 모르겠어요。개인적인 얘긴데요。』

『유리씨 얘기라면 뭐든 듣겠읍니다。』

그녀는 한참만에 넋두리처럼 얘기를 털어 놓았다。

『박복한 년이라 이런 죄를 받나 봐요。춘삼이 오빠 말 안듣고 욕심 내다가 이 꼴이 됐나 봐요。』

『뭔지 모르지만 털어놔요。괜찮아요。』

『제가 재일동포 청년한테 시집가게 됐다는 소리는 들으셨죠?』

『그래요。얼핏 들은 것 같애요。』

『전 진작 죽었어야 할 여자였어요。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봤어요。그저 시집 잘 가나보다 싶어서….』

『지금, 거기가 어딥니까?』

『집에요。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이 와야죠。』

『지금 가도 돼요?』

『미안해서 그렇지 저는 괜찮아요。』

『전화로 얘기가 안되겠어요。갈게요。』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신변에 불행한 그림자가 닥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그런 얘기를 듣고 잠들것 같지 않았다。

옷을 입으며 나는 점장이들의 말을 생각했다。내 몸에 살이 붙어 있다는 말과 관재수가 있다는 말은 중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누나, 자동차 열쇠 좀 줘。』

은주 누나의 방문 앞에 서서 내가 말했다。방문이 열렸다。여인의 잠옷은 컴컴한 밤일수록 더 어울리는 것 같았다。

『누나, 보통 매력 아닌데。』

『얘가, 자다가 주머니 긁는 소릴 다 하네。』

『정말야, 매력 만점야。』

『어딜 가려고 그러니?』

『열쇠나 줘。』

『그러다 큰일나려고。』

『다음 주에 기필코 면허 딸께。』

『믿어도 되니?』

『유행가 가사같네。믿어 봐。』

누나는 열쇠를 내밀었다。언제 보아도 고운 손이었다。

『누나, 더 늙기 전에 시집 가는게 좋겠어。』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누나는 내 등을 때렸다。

유리는 아파트 입구에 서있었다。화장기 없는 얼굴이 조금은 초췌해 보였다。고급 술집의 접대부 노릇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맑은 얼굴이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그녀가 팔짱을 끼고 앞서 걸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평수 넓은 아파트 내부는 유리의 깔끔한 성격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난 상관없어요。맘놓고 하세요。』

『그래야 도와드리든 할 거 아녜요。』

유리는 잠깐 뜸을 들였다。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지 모르는것 같았다。

유리는 차근차근히 뜯어먹힌 여자에 불과했다
재일교포 청년이라면 사족을 못쓰는것이 미워…

『이왕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사실, 제가 못된 여자였어요。그런 몸으로 시집이나 잘 가보자는 배짱였어요。벌 받는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억울하지 않은 건 아녜요。』

『그 남잘 어떻게 만났어요?』

한숨만 쉬는 그녀 입에서 얘기를 빨리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팔자는 타고 나는 거랬나봐요。참 우연한 기회였어요。일본에 살지만 늘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오는 남자였어요。생긴 것도 괜찮고 여유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보니 저도 좋아했고 그 남자도 제게 결혼해 달라고 떼를 쓸 정도가 됐지요。』

『혹시, 과거를 고백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얘기할까 봐 미리 입을 막을 정도로 속이 넓은 남자였어요。』

『그게 함정였겠군요。내가 그런 사내라도 그랬을 겁니다。』

『대충은 알아요。만난 곳이 내가 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약혼식도 하게 됐어요。』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다른 여자같으면 재일교포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사족을 못쓰고 덤벼든 것이 미워서 따귀라도 한대 때려줬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겐 차마 그럴수가 없었다。

유리는 차근차근 뜯어먹힌 여자에 불과했다。박 명수라는 한국이름을 가진 재일교포 청년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았다。유리가 그 동안 헤픈 웃음과 육신을 팔아 모아두었던 아파트와 패물, 현금과 저금통장은 바닥이 나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그 사람 뜻이 더 고마와서 제가 빚을 내온 것도 한두푼이 아녜요。그렇게 고국을 사랑하고 고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무슨 짓이라도 해서 돕고 싶었어요。』

유리는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울었다。흐느끼는 소리를 죽이려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가 사기꾼일 줄은 몰랐어요。정말 그럴 사람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지금도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속임수로 여자를 울리고 있는지 모르죠。안속고 배길 수가 없어요。』

그녀가 주절주절 늘어놓는 얘기는 한편의 훌륭한 사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일본에 거주하는 사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았다。솜씨로 보아 서유리라는 여자만 걸려든 것 같지는 않았다。재일교포 미남청년이란 사실을 사기행각에 유효적절하게 써먹으면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치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내이거나 아예 일본에서부터 사기술을 배워가지고 무대를 우리나라로 잡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수 높은 사내였다。

『그 친구, 잡아보면 알겠지만 전과가 많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보통 사기꾼과는 달라요。저도 제 똑똑한척 했고 그런 꼴을 많이 봐서 쉽게 속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어쩌다 보니,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저는 알거지가 되어 있었어요。이 아파트도 이미 팔려 버렸고 통장은 텅텅 비어버렸어요。』

『연고지는 있던가요?』

『다 찾아봤어요。혹시나 해서 공항에 나가 체크도 해보고 친척집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데도 아는데가 없어요。아주 철저한 남자였어요。일본에 연락해 봤지만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틀렸어요。제 생각엔 지금도 어디선가 여자를, 저같이 멍청한 여자들을 농락하고 있을것 같애요。』

『그럴 사내겠군요。일단 연고지부터 뒤져봅시다。아는대로 약도하고 연락처하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알려줘요。』

『제가 직접 가면 안돼요?』

유리는 애원조로 말했다。

『그건 안좋은 방법예요。』

『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여기서 나가자니 갈 곳도 없지만 그나마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구요… 여기 있자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나를 믿는다면 두 녀석 좀 여기 잡부시켜 놓겠어요。꼼짝 않고 숨어서 망 볼 애들이니까 같이 지내는 걸 겁내지 않아도 돼요。』

『믿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밥이나 두그릇씩 더 해줘요。믿을만한 녀석들이니까 걱정 않아도 좋아요。내가 그 사내의 뒤를 캐고 다니면 혹시 이쪽으로 올지도 모르죠。』

유리는 같이 찍은 사진과 내가 찾아나설 수 있는 연고지와 가까왔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었다。

『이것들도 대개가 가짜였겠죠?』

『정말 그래요。사업한다면 친구들도 가짜였어요。이름도 그렇고 연락처도 그랬어요。』

『이건 계획적인 사기꾼입니다。쪽바리 냄새 피우는 사기꾼들이 수두룩하게 늘었어요。재일교포의 쪽바리 더 하면 눈깔이 뒤집히는 여자들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다니죠。몸 날리고 돈 날리고…나중에 찾지도 못해요。더구나 이런 자식은 질적으로 단수가 높은 사기꾼예요。유리씨한테 일찍 떠난것은 더 먹어볼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죄송해요….』

유리는 흐느껴 울기만 했다。나는 유리의 어깨를 잡아 주었다。그녀는 몸을 돌려 내 품안에 기대었다。온몸이 따뜻했다。

훔치고 싶었다。

명식이와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엮어나간 여자가 아니라면 훔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육체의 섬세한 선이 내 몸에 전율처럼 닿았다。나는 내 욕정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싶었다。나만 이런 끈끈한 욕정을 지닌 걸까? 아니면 모든 사내들은 다 그런 것일까? 그도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욕정은 그런 것일까?

사기쳐 먹으려면 복부인 여편네의 치마를 벗겨먹지
이 땅은 외국물 먹은 사기꾼들 놀이터가 아니올시다

하나님, 번번이 묻는 것이지만 한번 더 묻겠읍니다。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어떻게 만들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겁니까, 아니면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까?

어째서 나는 여자만 보면 이렇게 아랫도리가 긴장되는 겁니까? 애시당초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선별해서 골라낼수 있잖아요。

핵무기같은것 자꾸 만들게 내버려두었다가 이 다음에 한꺼번에 처치하려는 속셈이십니까? 노아의 방주인가 하는걸로 인류를 멸망시킨 그 잔혹성으로 이번에는 불길로 인류를 멸망시킬 작정이십니까?

만들어놨으면 책임지는 하나님이 돼보세요。

『아침에 나가려면 주무세요。』

유리가 침대 위를 가리켰다。

『내가 여기서 잘께요。』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손님이잖아요。침대에서 주무세요。』

『나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걱정말고 자 둬요。』

『그래도 그럴수 없어요。』

그녀도 떡 고집스러웠다。그렇다고 내가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가위 바위 보를 하자고했다。

『이기는 사람이 자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는 가위 바위 보를 했다。

『다시 해요。그런 엉터리가 어디있어요?』

내가 약간의 시간차로 져주자 그녀가 투정하듯 말했다。

결국은 내가 침대 차지가 되고 말았다。그녀의 냄새가 물씬 배어있는 침대위에 누워서 자꾸 소파있는쪽으로 기어가고 싶었다。누구나 욕심을 낼만한 여자였다。

박명수라는 가짜 이름을 가진 재일교포 사기꾼을 잡으면 그냥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등쳐 먹을수 있는 배짱을 아주 요절내고 말 생각이었다。

이 떡을 치고 곤죽을 낼 사내야, 사기쳐 먹으려면 복부인 노릇해서 혼자 키들거리며 사는 여편네의 치마를 홀딱 벗겨 먹든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돈 번 고관대작의 간을 꺼내먹든지 할 일이지 어째서 가엾은 여자를 등쳐 먹었느냐。

넌 내 손에 걸리면 왜놈들한테 배운 네 사기술의 댓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보여 주마。넌 반드시 내 손에 잡혀야 한다。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조국의 처녀들을 농락한 그 맛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봐야 한다。재일동포 실업가라니까 처녀들이 오금을 못폈을 것도 안다。

그런 계집애들은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안하는 건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너를 못잡지는 않을 것이다。쪽바리 처녀애들을 등쳐 먹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너는 임자 만난 것이다。

두 녀석을 불러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녀석들이었지만 서유리의 아름다운 육체에 반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미리 다짐아 놓았다。

애들을 몇군데에 풀어 놓았다。재일교포라는 걸 강조하며 쑥쑥이가 헤픈 애들을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몇군데 연고지라고 보여지는 곳에 애들을 보냈지만 거의가 사기이거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었다。그런 사기꾼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고 장소와 대상만 바꾸어 잘는다는 걸 눈치 챌 수 있었다。이렇게 사기 쳐먹기 쉬운 곳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땅은 외국물 먹은 사기꾼이나 외국인증명을 내세워 거들먹 거리는 놀이터가 아니올시다。

병자호란 일으켜서 우리들의 외할머니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죠, 임진왜란인가 뭔가 만들어서 또 그 지경으로 만들었죠, 쪽바리들이 아예 차고 앉아 34년 11개월 19일 동안 괴롭히게 내버려 뒀죠, 6·25 전쟁 때는 또 어떤 꼴이었으며 요즘도 왜색시다 양색시다 해서 여자를 들볶는 이유나 좀 압시다。

힘 없는 나라니까 밥이라 이겁니까?

죄 받습니다。

월남같은 나라 가지고 그만큼 재미있게 놀았으면 정신좀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를 가지고 노는 게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스케일 좀 크게 가져 보세요。

일본하고 중공하고 한판 붙여주세요。우리도 전쟁통에 쪽바리들처럼 부자나라 돼가지고 큰소리 좀 처보게요。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비단옷도 입혀 드리고 편히 쉬실 곳도 마련해 드려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써 손색없도록 만들테니까요。

호텔출입이 잦다는걸 기억하고 애들을 풀어 놓았지만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꼬리가 보이지 않았다。꽤 유명하다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도 녀석의 그림자는 사라져 버린 뒤였다。일본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본명과 일본이름을 알수 없기때문에 인상착의와 사진으로 찾는 수밖에 없었다。녀석은 보통 사기꾼은 아니었다。남겨놓은 사진들은 모두 얼굴 중심이 아닌 배경중심의 사진이어서 확대하기도 어려웠다。

광화문의 피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될일도 아니었다。계획적인 사기꾼이 그런 수법에 넘어갈리가 없었다。

며칠동안 찾아봐도 감춘 꼬리를 찾지 못했다。나는 답답한 마음에 점장이를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까지 했다。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차라리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유리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대학을 중퇴하고 그런 길로 들어선 여자의 악착같은 돈을 한주먹에 쥐고 달아난 사내라면 쉽게 꼬리를 내놓지 않을게 뻔했다。

초저녁에 강남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녀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형, 진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L호텔에 비슷해 보이는 녀석이 들랑거린대요。』

『직접 봤냐?』

『못봤어요。놀부 깔치들이 그러는데 흡사하다는 거예요。돈을 풀풀 쓰고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꽤 삼삼하대요。』

『알았다。잘 지켜보고 놀부 애들한테 아가리 닥치라고 해。』

놀부라면 그 쪽의 바람잡이 애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고 놀부와 얽히고 설킨 계집애들을 깔치라고 불렀다。

나는 손 빠른 애들을 데리고 강남의 새로 생긴 L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워렌·E·버거 大法院長。 ◇데이비드·스토크먼 예산국장。 ◇캐스퍼·W·와인버거 美국방장관。 ◇제임즈·베이커 白堊館수석보좌관。 ◇토머스·P·오닐 下院議長。

◇에드윈·미즈 3세 美 대통령 고문。 ◇하워드·H·베이커 上院 다수파 지도자。 ◇알렉산더·M·헤이그 美국무장관。 ◇폴·볼커 美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널드·레이건 美 대통령。

美国·세계서 가장 센 사람들

월드·리포트誌 조사

소용돌이 속의 80년대에 미국의 운명은 몇몇 강력한 남성과 여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현재의 도전을 헤쳐 나갈수 있을 것인가? 미국내의 유력한 각계 지도자들이 밝힌 견해는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의 제9회 연례 여론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선 레이건이 1위, 외국指導者론 英 대처首相

◇美각계指導者들이 선정

30여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여론 지도층 1천5백48명의 응답을 종합한결과는 미국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책결정기관등이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회의였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다.

작년 응답자중 16%가 레이건에게 실격점수를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48%가 레이건의 직무수행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81년 취임후 레이건은 주요인사 3명중 2명꼴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 그를 「훌륭하다」고 평하는 사람은 4명에 1명밖에 안된다. 여성들의 평가는 더욱 혹독하다. 여성 응답자의 78%가 레이건에게 「수준이하」점수를 주고 있으며 「우수」점수를 주는 여성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들은 『레이건의 정책은 핵전쟁으로 귀결 될것. 레이건은 가난한 집단과 소수집단 특히 여성들의 권익을 소홀히 한다』고 불평한다.

레이건의 지지기반은 여전히 私기업이나 최근엔 여기서도 레이건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레이건에 대한 혹독한 비난에도 불구, 아직 많은 사람이 레이건의 강인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주리주의 멕시코레저지 발행인 로버트·M·화이트씨는 『소수의 사람이 뒤처지고 불평을 한다해도 레이건은 신속히 일어서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뿐만 아니라 미국정책을 다루는 다른 지도자들과 의회도 신랄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응답자중 38%가 「민주당 의회보다 지금의 의회가 좋다」고 대답했고 29%는 「훨씬 못하다」고 응답,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진보적 인사들은 『의회는 처

◇캐더린·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紙 회장。

◇아더·O·슐즈버거 뉴욕·타임즈 발행인。

◇데이비드·록펠러。

◇댄·래더 CBS방송 앵커맨。

◇레인·커클랜드 AFL·CIO 회장。

◇재리·폴웰 TV선교사。

美國 레이건은 에스키모人에 냉장고 팔수있어

2위 볼커 "돈줄의 수도꼭지 엄지로 누르고 있는사람"

3위 헤이그國務는 「미국外交의 聖職者」

4위 H·베이커는 議會서 가장 영향력 커

5위 대통령顧問미즈는 "또다른 레이건"

음에 레이건에 의해 밀렸다』고 지적했고, 보수적 사람들은 『83년도 예산 심의때 레이건의 지도력을 손상시켰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문제중 가장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사항은 경제정책. 69%가 비록 인플레는 잡혀간다고 응답했으나 대다수는 레이고노믹스(레이건의 경제정책)가 경기를 부양시킬수 있다거나 고금리를 끌어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응답자의 87%가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 감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회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주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이 『레이건은 그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레이건에 의해 명확한 진로를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연출가 조제프·팝씨가 가장 간결한 말로 이런 견해를 대변한다. 『그는 대통령이다』라고.

금년에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는 대통령인 레이건이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것이 당연하다. 2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는 연방준비은행 총재 폴·볼커가 뽑혔다. 작년 6위였던 그가 2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은 응답자들이 고금리등 경제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요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원이 작년 3위에서 4위로 밀렸다. 행정부는 어느 부서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TV방송국은 3위.

응답자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얼굴을 부각시켜주지 못했다. 84년 대통령지명전에서 레이건이 공화당에서 재지명될것을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나 레이건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현 부통령 부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에드워드·케네디보다 전 부통령 월터·먼데일이 대통령후보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

당면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여론을 반영하듯 영향력이 큰 개인 선정 부분에선 민간인이 밀려나 있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 간다는 것이 레이건의 정책인데도 레이건의 미국사회에 대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공공분야나 민간분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레이건과 그의 보좌관 5명, 그리고 4명의 다른 관리들을 선정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9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가운데 정부 바깥 인사가 끼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이스·맨해턴은행의 데이비드·록펠러가 겨우 11위를 기록했다. 록펠러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민간금융의 상징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지속되는 경제적 고통과 쌓여만가는 국제문제를 다루자니 백악관의 정책은 시민생활에 깊은 충격을 안겨줄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영향력 평가를 할때 레이건의 정책인 정부기능의 축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것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모았다. 고금리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연방준비은행총재 폴·볼커를 작년 6위에서 금년 2위로 올려 놓았다고 보는 것이다.

미드웨스턴의 한 신문편집장은 『폴·볼커는 돈줄의 수도꼭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경제정책 다음으로 응답자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국방·외교정책을 다루는 권력이다. 핵제한회담, 포클랜드 위기, 중동의 긴장상태가 배경이 되어 헤이그 국무장관과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주요 인물로 급격히 부상했다.

이들을 톱·랭킹으로 선정한 과학자는 『헤이그와 와인버거의 정책은 국민생활의 존망을 가늠할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배경설명을 했다.

응답자들은 레이건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보좌관들을 상위랭킹에 꼽았다. 대통령고문 미즈는 작년 7위에서 5위로, 백악관 수석보좌관 베이커는 12위에서 7위로 치솟아 올랐다.

여성들은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 미국의 지도적 엘리트·그룹에 거의 끼지 못했다. 여성중 상위에 낀 인사는 워싱턴·포스트지 회장 캐더린·그레이엄이 17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퍼스트·레이디 낸시·로널드, 여성 대법원판사 샌드라·데이·오코너, 유엔주재 커크·패트릭대사등이 겨우 50인 안에 들어있을 뿐이다.

...에 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로널드·레이건 (71세·대통령)=레이건이 막강한 영향력이 였는 사람으로 꼽힌 것은 대통령직책에서 나오는 협이겠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능숙한 기술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레이건의 정책은 「깊이가 없다」「단순하다」「멀리 보지 못한다」는등의 비난을 퍼붓는 정적들도 『레이건은 비범한 최고 집권자』라고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제 서비스연협회의 법률담당이사 디크·머피씨는 『레이건은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레이건은 그의 보수적 철학과 인간적 매력으로 조화돼 있어 지지자들의 충성심을 불러 일으켜 놓는다. 레이건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를 링컨이나 제퍼슨에 필적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센디에이고시장 피트·윌슨씨는 『레이건대통령은 미국과 미국경제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길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년전 레이건에게 쏠렸던 압도적인 지지는 이제 사라졌다. 5년간에 걸친 1조3천억달러의 국방비 증액, 소득세감면, 사회복지정책의 대폭축소등 말썽많은 정책에 대해 레이건비평가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

▲②폴·볼커 (54세·연방준비은행총재)=볼커는 카터정부시대에도 대통령 다음서열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자율을 통제할수 있는 기관의 우두머리로서 특히 강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메릴랜드의 금융인 J·오웬·콜은 『볼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인』이라고 평했다.

▲③알렉산더·M·헤이그 (57세·국무장관)=헤이그 국무장관은 가끔 백악관과 마찰을 일으키지만 「미국 외교의 성직자」가 돼가고 있다.

레이건의 보좌관들과 행정부 각료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헤이그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의 한사람이다. 미주리주 최고재판소의 로버트·T·도넬리판사는 『미국 외교정책은 분명히 질서가 없다. 이런 무질서를 정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헤이그밖에 없다』고 말했다.

▲④하워드·H·베이커 (56세·상원다수파지도자)=의회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도 있으나 베이커개인의 영향력은 지금이 가장 막강하다. 워싱턴의 변호사 리·뢰빙거는 『그는 자식이 지도자다운 진정한 지도자임을 입증해 주고있다.

베이커는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나 아직은 그를 대통령감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⑤에드윈·미즈3세 (57세·대통령고문)=미즈는 작년 2위에서 5위로 밀리긴 했으나 여전히 백악관의 또다른 레이건이라 할만큼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즈는 국내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 집중시키게 할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록펠러재단 이사장 윌리엄·M·디텔은 지적했다.

▲⑥토머스·P·오닐 (69세·하원의장)=민주당원으로 제일 높은 공직자인 오닐은 레이건이 제시한 경제사회 계획의 대안을 만들고 한편으론 민주당내의 불화를 다스리기에 바쁜 사람이다.

오하이오주 에크론시 토이·레이시장은 『오닐은 83년도 예산심의에서 의회의 중추적 인물이 될것은 물론 대통령의 정책을 심의하고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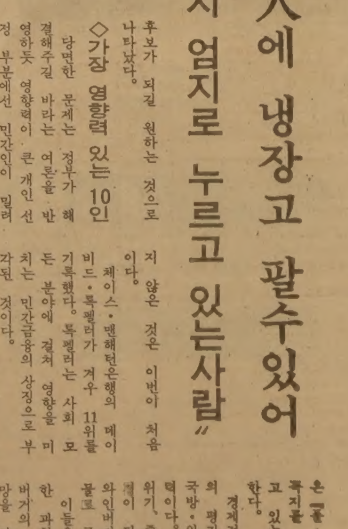
▲⑦제임즈·베이커 (52세·백악관 수석 보좌관)=레이건행정의 문지기라는 평을 듣는 베이커는 백악관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예일大 의대 심리학교수 제임즈·P·코머박사는 『베이커는 대통령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고있다』고 말했다.

▲⑧캐스퍼·W·와인버거(64세·국방장관)=국방력증강을 부르짖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정책엔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방력은 국제문제를 대처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힘이된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스페리·유니백社의 이사를 지낸 칼·해머씨는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미국의 입장이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변호사는 『와인버거의 판단이 나라를 좋은 결과로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⑨데이비드·스토크먼 (35세·예산국장)=서열이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연방예산 삭감에서 그의 역할은 막강하다. 한 전문 경영인은 그의 영향력을 레이건 다음으로 평가하면서 『연방예산은 미국경제의 장래를 결정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⑩워렌·E·버거 (74세·대법원장)=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미국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해준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상징이 되고있다. 한 방송국 이사는 『사법기관을 이끌어 가면서 그는 몇 10년간에 걸칠 장차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마거리트·대처 英首相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부분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맘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어디서 않는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셈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추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코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미술기사신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대

자 수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성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실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6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성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일 수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저 합니다.
전화분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앓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직원모집(6명), Steeles & Warden Area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실수 있는 여자분으로 가벼운 공장일(Neither dirty nor heavy)을 하실분. 처음 Starting Pay는 시간당 $4.50이며 특히 아래주소근처에 사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475−8748(Mr. Magi)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일보 Miss 박을 찾아 문의하십시요.
100A Gibson Dr. Markham, Ont.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Cashier 구함
Downtown(토, 일) 전화: 461−5242

지렁이잡이 하실분 구함.(동부지역) 오후 5시에서 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264−3758 (Mr. 최)

경험있는 Cashier Part Time 구함.
주 2일정도 (Jane×Finch 지역)
전화 : 665−3825 오후8시이전 연락바람

충북 영동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백경희, 탁명순을 찾음.
연락전화 : 533−0489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 있으신분 구함
전화 : 665−8233

여권 분실

여권 분실
여권번호 : R 309356
발행일자 : 79년 7월
소지자명 : 홍정숙(동반자녀: 이준형(남),이시영(여))
분실날자및장소: 82년 1월23일 아리랑식당 뒷쪽 주차장
연락처: 335−0513 이상덕

구 직

저희 집에서 애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Jane & Finch) 전화 : 661−7891

Baby Sitter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전화: 245−8373 (Mrs. 박)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BUSINESS 안내

1) 작고 알찬 Variety Store
Pape & O'Connor 네거리에 있음. 작년주매상평균: $4,600 그외 로타리오 머신에서 순수입 월 $800이상.
렌트: $500, 리스: 2년+5년, 아스킹: $40,000

2) 처음 혼자 해보실 분에게,
3410 Kingston Rd. M & P Milk Store로
들려보십시요. 렌트: $300, 새리스: 5년+5년이 가능하고 경쟁자 없음. 봄 여름에 정원용 Business를 별도로 할수 있음. 주매상: $2,500 아스킹: $15,00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 Tel: 752−3111
곽 석 용

집 팝니다(Bellwood Queen Area)
6베드·룸. 좋은 조건임(Private Sale)
가격 : $66,000.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445−9486

CAN−AM REAL ESTATE LTD.

Wanted 2 licensed Real Estate sales people to service Ontario's Korean community. A working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You will represent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ne of Florida's largest home builders and community developers.
Top commission, starting salary and manager status available to successfuly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 Hill at 661−1625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A1430−80
*Ask for and read carefully the Prospectus relating to this offering.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스탁.
위 치 : East of Jane & Bloor지역
주 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 있으신 분의 내방요망. 주중 9:00a.m~18:00p.m

이훈모 부동산
1) Variety Store 매매 (짧은 영업시간)
주매상: $4,000. 렌트: $850 리스: 5년+5년
아스킹: $40,000 (2 Bed Room 아파트 포함)
2) Donut Shop
주매상: $6,500 아스킹: $220,000
리스: 20년. 다운페이: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225−1204)
전화 : 225−1204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전망좋은 지역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호텔을 아파트먼트로 개조한 건물 팝니다.
(5 아파트먼트 & 1 Store)
자세한 문의는 전화 : 846−0800 (Hogg)
Royal City Realty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 매매"
Discount Variety Store
주매상: $3,000. 현 영업시간은 8시간이나
앞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할수도 있음.
962 St.Clair Ave. W.
전화 : 654−4410 Vatale

Cash Register Sharp
ER−2533 전화: 364−7943

---

1) 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햄버거 숍
주매상: $8,000 리스: 4년 + 옵션
렌트: $1,700 아스킹: $350,000
2) Variety & Gift Shop (건물포함)
토론토에서 30 mile 거리에 있음.
년매상: $600,000 아스킹: $420,000
3) 사무실 Building안에 있는 미장원
주5일 오픈. 주매상: $1,500 리스: 6년
아스킹: $45,000
4) 그외에 시간짧고 운영간소한
Fast Food & Take Out 비즈네스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영업시간이 짧은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000
전화 : 531−1155 낮 12시 이후 연락바람.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조지)

대지(Cottage용으로 적합) 매매. Best Offer
Midland Area (Barmbeach) 넓이: 50ft × 120ft.
(Toronto에서 80mile 거리) 전화 : 922−2966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급 매"
세탁소와 Bakery(Plaza안에 있음).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4020 Dundas St. W.

꽃집매매. 조그마한 자본으로 이윤높은 꽃가게.
바쁜 지역으로서 Parking장도 있음.
가격 : $7,900. 전화 : 698−9188 (마이클)

Convenience Store 매매
◉오샤와 지역 ◉렌트: $185 ◉리스: 4년
◉Whitby 지역 전화: 282−7596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533−7923
Y.M.C.A. .... 536−1166
외환은행 .... 364−2890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무역진흥공사 .... 977−8784
동 우 회 .... 261−2917
캐나다체육회 .... 884−5573
한인신용조합 ....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 및 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오순절과 성신강림

성 령 교 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람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성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2:1－4)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삼대명절(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하나이요 유월절의 정신적 연속이며 그의 완성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 수난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의 안식일들(주간 및 년중 안식일)을 폐한것이 아니라 매일에 채워서 완성시킨 매일 안식일 정신의 창조이며 제정입니다. 이는 안식일중의 안식일이며 안식년중의 안식년 곧 심령천국의 희일이며 희년(Day and year of Jubilee) 입니다. 이는 시공과 종족과 언어를 초월한 무제한(Omnipresence) 한 인간영혼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일입니다.(레23:1－21, 요4:20－26, 마11:27, 12:1－13)

오순절은 이스라엘 출애굽후 특정민족만이 마지했던 시냇산상 율법의 오순절을 완성한 인류복음의 오순절입니다. 율법의 오순절은 홍해 넘어로 이방을 작별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의 보증이요 복음의 오순절은 요단강너머로 세상을 이별하여 영생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제2이스라엘의 보증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영혼의 중생체험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지상혼인이며 제이의 창세기입니다. 혼잡한 언어사상의 정화통일이며 신령한 인류공동사회의 실제적 회복이며 연시(Demonstration)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혼잡 분열된 시날평지의 바벨민족의 후손을 성화시켜 영생통일왕국으로 수입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지상예비작업이며 또한 유일한 보증입니다.(출19:16－19, 행2:1－13, 엡1:13－14, 요3:3－5, 눅1:34－35, 마25:1－10, 창2:21－25, 창2:7, 요20:22, 창11:1－9, 행2:38, 행2:16－17 마3:10

율법의 오순절이 구약교회의 창설이라면 복음의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과 소리(방언)로 임하였던바 전자는 육체밖의 광경을 시청각으로 경험한 것이요 후자는 육체위에 임하는 초자연적 기적을 오관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전자는 의문에 쓴 율법(Letter of Patterns)의 증서를 입은 교회요 후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육체안에 내주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전자는 구선지자(모세)의 중매로 혼인언약을 이행해야 할 수절본위의 미혼부부관계의 교회요 후자는 신 선지자(예수)의 중보로 그 언약(율법)을 회복하고 완성한 혼연일체의 기혼부부관계의 교회입니다.(히12:18－24, 행2:37－47, 마3:11－12, 행2:1－4, 행1:8, 행2:16－17, 요1:17, 엡1:13－14, 고전3:16－17, 눅1:35, 고후11:2, 마25:1－11 제21:9－11)

그런고로 육체로 성신을 체험한 자만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영상을 옳게 분별하고 그의 음성을 바로 들으며(말씀분별) 또한 계시와 은사를 정확히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먹이는 자격이 될수있는 것입니다. 성신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후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부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신조와 교리였으며 또한 그들의 목회방법이요 닦아놓은 하나님 교회의 공고한 초석입니다. 이 닦아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자가 없다고 사도바울은 경고하였으며 이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일찌기 선언하셨읍니다. 실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되사 그의 안에서 전물(건재) 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여가고 성도(성신 받은자)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지어져가야 되겠읍니다. 아멘!(고전11:29, 고전2:12－16, 딤후2:15, 요10:27, 요16:13, 1요2:27, 롬8:9, 딤전4:14－16, 갈1:11－12, 행20:28, 행13:2－3, 출28:3, 암3:7, 행2:37－47, 엡4:11－16, 고전3:11, 마16:8, 엡2:20－22)

선지자 요엘은 일찌기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읍니다. 또한 장로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여 지적하는 중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였읍니다. 이천년 전에도 신령이 없는 율법이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시고 영의인신(灵衣人身)하신 하나님(예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받았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후 성신을 한량없이 당신의 자녀들의 육체에 부어주신 이천년간 무수한 그리스도의 기름부으신 종들을 살육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핍박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무할례당(성신부인하는 무리)이야 제이의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읍니까?(행2:16－17, 1요2:18－23, 1요4:2－3, 2요7, 살후2:1－12, 제13:13－18, 요1:1－18, 요20:21－22, 유10－20)

그런고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신을 훼방하는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읍니다. 사도바울은 로마교회에 부치는 서간에서 "만일 너희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일렀고 사도교회의 모교회인 에베소교회를 개척할 벽두에도 "너희가 믿을때에 성신을 받었느냐?"고 문제삼아 물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교회국가 회복)의 때를 물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신고로 그들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Come upon you)권능을 받고 당신의 증인이 될것"을 선결문제로 가르쳐 주셨읍니다.(마12:31－32, 롬8:9, 행19:2, 행1:8)

성신없이 교회를 한다는것은 신경없는 기계적 조립(mechanical Assembly)이나 영성없는 유물주의 조합(materialistic Association)같은 하나의 조직체(Organization)는 될지 모르나 생명있는 상호 연동적 유기체(Organism)는 될수없는 것입니다. 생기없는 뼈들이 모인 학사원이나 부패 직전 여름실과 한광주리 같은 실업인 친목회는 될지 모르나 사도적 메타노이아(성도의 상호교제) 교회는 될수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마취시키는 혼잡한 유사종교의 수도원이나 인간의 사상을 세뇌하는 기준없는 윤리도덕의 수양원은 될지 모르나 인간 영혼의 중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근본신념으로 하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거가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계발하고 이지를 연마하여 세대에 선비와 변사를 배출하는 화려한 학당이나 학원은 될지 모르나 인간의 영성을 고무하고 하늘의 별같은 신령한 진리를 체득하여 그리스도의 분부한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선지사도교회의 지향목표와는 판이는 것입니다. 잘 생긴 변사들의 세련된 언변과 미려한 가수들의 기교있는 목소리로 회중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문예부흥단은 될지모르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므로 하늘(성령)의 감동을 초청하여 인간영혼에 평화와 안식을 베푸는 성령의 교회는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미명하에 초교파 초교단적으로 합세, 단합, 운집하여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사도바울이 선포한 사도신앙의 단일 초석위에 제각기 이질적인 교리와 개념이 동화 일치되는 가내적인 복고작업 없이는 비없는 풍운과 뇌성이요, 내란 원정장군의 허세요, 초석없이 사토위에 지은 화려한 궁전이요, 뿌리썩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지날것이 없읍니다.(고전12:12－27, 겔37:1－10, 암8:1－3, 1요4:1, 딤후3:5－7, 고전1:19－2:16,

기름부음(성신세례)과 계시(안수예언) 없이 교회를 한다(목회)는것은 섬김을 받고저하는 목사(teacher)는 될지 모르나 양무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Pastor)는 될수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윤리도덕가(Moralist)는 될지 모르나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자(Angel)는 될수없는 것입니다. "숭배함을 받는자 위에 뛰여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하는 교주는 될지 모르나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및 지체사상을 가지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말씀하신 신념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은 될수 없는 것입니다.(행13:2－3, 14:23, 20:28, 딤전1:18, 딤전4:14, 요10:1－18, 딤후3:5－7, 제1:20, 살후2:4, 마23:8－10, 고전12:27)

지금은 성신시대 입니다. 말세 영혼의 수장절(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자연으로 말하면 흙과 물의 혜택을 받아 개발하는 춘하지점을 지나 태양의 정기(Energy)를 흡수하여 결실하는 늦은 가을입니다. 이와같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은 성신과 불로 말세의 가을에 오셔서 당신의 정기(성신의 불)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므로 영혼을 결실케하며 수장할려는 직전에 있읍니다. 이 지대한 하늘의 성업을 위하여 세례요한은 의의 태양(예수) 앞에 먼저 가서 율법의 죄를 요단강물에 씻으며 태양의 조명(성신세례)이 올것을 이천년전에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에 있어서 "나는 너희로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외쳤읍니다.(살전4:16－17, 살후1:7－10, 사11:3－5, 겔36:24－31, 말4:2, 마3:11－12, 말3:2－3, 행2:3, 요1:1－18)

성신이라함은 체험적으로는 소멸의 불이요, 표적적으로는 각종 은사요, 직임적으로는 주님이시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시요, 종교적으로는 신령이요, 사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요, 심령적으로는 감동이요, 도덕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례(회개)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선물인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기도하든 120문도들에게 홀연히 임하였던것이 바로 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는 신약교회의 시동이요 능력이 였읍니다. 그런고로 사도베드로는 선포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가시덤불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하였읍니다.(행2:3, 사4:4, 히12:29, 고전12:4－11, 고후3:17, 요4:24, 요16:13, 1요4:17, 딤후3:16, 스1:5, 삼상16:13, 삿14:6, 제1:10, 막12:36, 요14:16, 행21:4, 룻15:16, 살후2:13, 벧전1:2, 행2:1－4, 행2:39－47, 고전2:4－5, 렘4:3－4)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하신바 가나안땅으로 기업을 삼을 증거를 물을때 여호와께서는 그 보증으로 성축의 번제물을 요구하시고 그 번제물의 쪼갠(할례한)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했고 쪼개지 아니한 조류 번제물 위에 솔개가 내리락 오르락하며 아브람을 괴롭게 했읍니다. 전자는 회개하고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녀들의 기업에 보증이 되는 것이요 후자는 회개하지 못한 불신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상징입니다. 이는 한사람의 불성실한 제사(회개)나 불완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축복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징치가 임하게 되는바 아브람에게도 이 사건이 있었읍니다. 살인도피 방랑객이며 노쇠한 팔십노장의 미디안 목자인 모세도 호렙산 광야에서 자기발의 신을 벗음(겸비, 온유, 순종의 제사)으로 떨기나무의 불과 소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는 구세주가 되였고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창설하고 목양하는 선지자와 목자가 되였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가정적으로는 므낫세 지파중에 극약한 사사 기드온도 여호와께서 약속의 주되신 표징을 보고자 성축과 무교전병의 예물을 반석위에 드릴때 그 예물을 소화하고 흠향하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므로 미디안을 타파하는 큰 용사가 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왕시대 선지자 엘리야는 훼파되였던 여호와의 구약교회를 회복함에 있어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될것을 선언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신앙의 기준과 제사의 질서를 따라 수축한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것과 자신이 주의 종이 됨과 또 주의 말씀대로 사역(목회)하는 일 들"에 대한 증험과 성취를 호소할때 이는 다름아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회생의 장본인)과 나무(합심기도 하는 성도)와 돌(선지자들의 초석)과 흙(기경한 심령의 밭)과 도랑의 물(회개한 심령의 눈물)을 소화하므로 흩어진 이스라엘 무리의 신앙과 사상과 회복하고 거짓선지자들을 사로잡아 소탕하였읍니다.(창15:8－17, 엡1:13－14, 약2:10－11, 출3:1－10, 사6:17－21, 왕상18:20－4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나니라"고 하셨읍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말씀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회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세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는 다짐이며 출발인 것입니다. 성신으로 거듭난다는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양심의 회개와 씻음뿐만 아니라 믿는자의 기업에 보증이 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신(불)체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씻음을 받은자의 양심(기독교 도덕)과 행위(기독교 윤리)를 믿음의의로하는 형이하의 육급신자요 후자는 그 위에 신령(기독교 종교)과 진리(도성인격)로 완전 중생된 형이상의 영급성도입니다.

여기에 물로 거듭나야할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물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세례요한이 가장 전형적이고 성신으로 거듭나서성신(불)으로 역사하는자의 대표적 인물을보인다면선지자 엘리야가 최상의 적격일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야할 세대의 대표적 족속을 든다면 의인 노아의 8식구이며 성신으로 거듭나야할세대의 대표적 집단을 말한다면 공중휴거의 처음 익은 열매성도일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멸망하였고 성신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세대는 어떻게 소멸될것을 성경은 명백히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였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율법)은 물로 씻어 정화한 시대요 신약(복음)은 불로 단련하여 성화하는 시대입니다. 이 둘은 제사(율법)시대에도필연적이였었고(외식적으로) 회개(복음)시대에도 더욱 요청(외식과 심령적으로)되는 것인바 곧 물세례와 성신(불) 세례인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을 무시하고 반역한 자들의 종말심판에 당할 저주와 고난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못한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요3:5, 히10:22, 벧전3:21, 마3:11, 왕상18:36－40, 왕하2:9－11, 벧후2:5－8, 창6:9－12, 살전4:16－18, 살후2:8, 말4:1－3, 벧후3:6－13, 제20:7－15) (끝)

성 령 교 회

김관선 목사
성령교회(토론토) 담임
☎: 275－4650